

석 사 학 위 논 문

박영준의 『종각』에 나타난

기독교적 인간상

지도교수 안 성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주 영 자

2002년 2월

박영준의 『종각』에 나타난

기독교적 인간상

지도교수 안 성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12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주영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국문초록>

박영준의 「종각」에 나타난 기독교적 인간상

주 영 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안 성 수

이 연구는 박영준 장편소설 「종각」을 텍스트로 하여, 작품의 구조를 포함한 욕망과 갈등구조 등의 분석을 통하여 인물의 유형과 인간상 등을 추출한 뒤, 죄의식을 통해 바라본 구원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구 방법은 작품에 대한 치밀한 분석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구조주의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그 외에도 문학사회학, 역사주의, 심리학, 신학, 기호학적방법 등을 원용하였다.

제Ⅱ장에서는 구조주의 방법에 의거하여 텍스트를 분석하고 요약하여 작품의 변형원리와 기법의 발견과 의미를 탐색한다. 그 결과 이 작품은 시간착오기법, 패턴기법, 콜라주, 시점과 서술을 통해 작품의 사실성과 종교적 차원의 죄의식을 강화하여, 회개 혹은 반성적 상황에 이르게 한다.

제Ⅲ장에서는 이항대립구조(의미작용의 기본구조)의 기본 틀을 활용하여 욕망과 갈등을 살핀다. 이러한 시도는 인물의 성격유형과 인간상을 유형화시켜 유형분석의 틀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순종적 회개형, 탈신앙적 타락형, 순진무구한 속죄양형, 권력적 신앙인형 등 네 가지로 유형화된다.

제Ⅳ장에서는 앞장에서 유형화한 인물형을 기독교 윤리인 십계명과 기독교적 죄의식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성경 속의 인물 유형에 접근시켰다. 이런 유형화 작업은 기독교적 인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단서가 되었고, 다윗형, 이세벨형, 그리스도형, 바리새인과 발람의 혼합형 등 네 가지의 인간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제Ⅴ장에서는 ‘종각’의 상징성과 주제의 세계를 다원적인 주제 해석법을 통해 입체적으로 해석하였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끊임없는 회개를 통하여 죄의식을 자각하고, 봉사과 사랑의 실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종교행위에 의해 점진적, 누적적으로 종교적 구원을 향한 노력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정리하여 결론으로 제시하게 된다.

* 이 논문은 2002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1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	6
II. 작품의 구조와 기법	7
1. 텍스트 분절과 요약	7
2. 플롯과 스토리 대비	15
3. 기법의 발견과 그 의미	18
III. 욕망과 갈등구조	38
1. 순종적 회개형	39
2. 탈신앙적 타락형	41
3. 순진무구한 속죄양형	42
4. 권력적 신앙인형	44
IV. 인물의 성격유형과 인간상	47
1. 다윗형	50
2. 이세벨형	53
3. 그리스도형	59
4. 바리새인과 발람의 혼합형	64
V. 죄의식을 통해 바라본 구원의 의미	70

1. ‘종각’의 상징성	70
2. 주제의 세계	72
3. 죄의식과 종교적 구원	82
VI. 결 론	85
참고문헌	88
Abstract	94

그 립 목 차

<그림 1> 플롯과 스토리 대비	17
<그림 2> 광주와 김장로(김집사)의 욕망갈등도	40
<그림 3> 광주(목사)와 대주(선희)의 욕망갈등도	41
<그림 4> 목사와 김장로(김집사)의 욕망갈등도	43
<그림 5> 목사(전도부인·정장로)와 김장로(김집사)의 욕망갈등도	45

I. 서론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박영준(朴榮濬, 1911~1976)의 장편소설 「종각(鐘閣)」을 텍스트로 하여 작중인물의 유형과 인간상을 탐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죄의식을 통한 구원의 의미를 규명하는데도 목적을 둔다.

일반적으로 작중인물(주인공)은 곧 작가의 자화상이다. 모든 작중인물은 작가가 자신의 체험 세계나 상상의 세계로부터 그 모델을 구해 온다. 따라서 작중인물은 작가가 꿈꾸는 비전이자 이상적 인간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몇몇 작품들 속에서는 인물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일도 있지만 작품의 인물을 연구하는 것은 여전히 작품론의 중심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인물창조 방법은 작가의 세계관, 문제의식, 관심구조 등의 형이상학적인 차원의 문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¹⁾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만우(晩牛) 박영준은 문학의 본질을 인간의 삶에 대한 윤리적 추구로 인식한 작가이다. 그의 대부분의 작품이 인생의 긍정적인 삶과 윤리 문제에 주제를 두고 있는 것도 같은 논리에서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인간의 미묘한 감정의 물결은 침삭하면서 인간의 근원적인 윤리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인간의 성실한 노력”²⁾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박영준의 작가의식은 체험에 바탕을 둔 기독교적 신앙관과 윤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영준은 기독교적인 것만 다룬 것은 아니다.

1) 조남현(1983), 「소설원론」, 고려원, p.134.

2) 박영근(1992), <박영준>, 「한국문학대사전」, 고려출판사, p.277.

그의 작품 속엔 기성세대의 퇴폐적 윤리가 있는가 하면 신세대의 타락상이 있고, 性倫理의 타락이 있는가 하면 쾌락이 있고, 性을 부끄럼 없이 매매하는 여대생이 있는가 하면 친구의 애인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남녀가 있고, 아들 같은 자식(대학생)의 性器를 밤마다 희롱하는 주부(유한마담)가 있는가 하면 性에 굶주린 派越 기술자들의 아내의 不倫이 있는 등, 실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린 요지경 속 같은 오늘의 不義不倫의 세태상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세대간의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부자간의 의견 충돌, 사제지간의 도의의 타락, 친구간의 불신, 男女性器의 도구화(퇴폐적 性 윤리) 등, 이른바 不正, 不義, 不倫의 현실적 사회의 실태를 파헤치며 그것을 폭로, 고발하여 주고 있음을 본다. 즉 새로운 가치 질서가 없는 데서 빛어진 세대의 타락상을 리얼하게 파헤치고 있다.³⁾

박영준 소설에서 타락한 인물들은 일관되게 기독교적 신앙의 윤리성을 회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작중인물들이 퇴폐와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바람직한 인간들로 재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박영준의 「종각」은 기독교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죄의식’을 제재로 삼고 있다. 모든 문학이 작가의 사상을 세계관이나 윤리관과 연결시켜 구체화시킨 것이라면,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적 인간관⁴⁾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문학이란 개념은 낭만주의 이후에 생겨났으며, 타 문학에 대하여 하나의 대립적인 개념으로 쓰여졌다.⁵⁾ 기독교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3) 김희보(1979), 「한국문학과 기독교」, 현대사상사, pp.61~62.

4) 기독교 인간관이란 첫째, 하나님이 영적세계인 천사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인 자연계를 지었다고 믿는다. 그는 전지전능과 무소부재(無所不在)로 우주와 인간을 주관한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 영과 육체인 몸으로 통합적인 인간이다.(창세기 2장 7절) 셋째, 의지의 자유를 가진 인간이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담에게 양면의 가능성을 선택하는 자유를 준 것이다.(창세기 3장) 넷째, 구원을 받아야할 인간이다. 최초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원죄이며, 인간의 마음이 악함은 죄가 유전되어 잘못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누가복음 15장) 다섯째, 남자와 여자의 공동체인 인간이다.(창세기 2장 18~25절, 전도서 9장 9절.) 정병환(1978), “기독교의 인간관”,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p. 3~19.

는 기독교의 구원이나 윤리의식 등을 시점, 기법, 주제, 인물, 갈등구조 등과 관련시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학은 죄의식을 통하여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의 은총을 형상화한다.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 문학의 작가 또한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진지하게 구현하는 자로서 기독교적 신념에 충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⁶⁾

일반적으로 기독교 문학 작가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며, 기독교의 복음을 널리 전하려는 열망과 소명의식을 가진 자이다. 나아가 종말론적 세계관으로 한 생명의 구원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신앙의 실천가로서 기독교적 상상력과 진실한 노력을 보이는 신앙인이라 할 수 있다.⁷⁾

박영준의 장편소설 「종각」은 주인공이 과거에 육욕의 죄를 짓고 속죄하기 위해 기독교를 선택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느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이는 기독교 사상의 본질인 범죄 - 속죄(죄의식) - 구원(용서)의 구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타락한 윤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준 전형적인 작품일 뿐만 아니라, 작가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문학 작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는 기독교 문학의 관점에서 작품 속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과 죄의식 등을 바탕으로 작품에 나타난 인간상과 구원의 의미 등을 고찰함으로써 작가가 이 작품에서 추구했던 기독교 문학의 지향점을 밝혀 보려는데 목적을 둔다.

2. 선행 연구 검토

박영준은 40여 년 동안 약 200여 편의 단편과 7편의 중편, 17편의 장편을 남겼다. 한국 문학사에서 그 나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 쿠르트 호호프(1986), 「기독교 문학이란 무엇인가?」, 한승홍 역, 두란노, p.11.

6) 조신권(1978), “기독교문학의 본질·구조·기능”, 『현대사조』, pp.6~8.

7) 강요열(1991), “한국 현대 기독교소설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31.

까지 그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김두업은 박영준과 그의 문학이 연구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는 박영준이 창작 외적인 활동, 즉 평론 활동이나 문단에서의 단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까닭에 그의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점이고, 둘째는 그의 작품 가운데 문단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른바 문제작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문학평론가들이 그의 작품에 대해 언급하기를 회피했다는 점이며, 셋째는 그의 작품에서 어떤 문학적 특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문학연구자들이 그의 문학을 연구대상으로 삼기를 꺼려 왔다는 점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⁸⁾

지금까지 다루어진 박영준 연구도 대체로 농민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기독교 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 받고 있는 장편 「종각」에 대한 논의로는 임영천, 김두업, 정운숙, 김희보, 최병우, 윤혜정, 김봉군 등의 것이 있으나,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부수적이고 제한적인 단편적 연구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김윤식이 “장편 「종각」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죄의식에 있음을 소설로써 보여 준 것”이라고 한 평가나, 송상일이 “한국문학사에서 죄의 테마를 만나려면 박영준의 「종각」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한 지적은 이 작품이 한국문학사에서 본격적인 기독교 문학의 한 정점에 놓인 작품임을 의미한다.⁹⁾

김희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원죄의 개념을 파악하고, 죄의식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와 인식이 없이는 이 작품을 통속소설로, 아니면 이데올로기에 치중된 호교소설로 오인하기 쉽다”라고 지적하였다.¹⁰⁾

최병우는 “개인의 윤리적 타락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복의 형식은 「종각」

8) 김두업(1983), “만우 박영준 론“,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pp.3~4.

9) 임영천(1995), 「한국 현대문학과 기독교」, 태학사, p.369에서 재인용.

10) 김희보(1979), 전계서, p.62.

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건들과 연결되면서 하나의 완벽한 장편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독교에 의한 윤리 회복의 구조는 박영준이 해방 후 우리 현실의 윤리적 타락을 소설화하면서 마련한 해결 방안임을 주장한 바 있다.¹¹⁾

김봉균은 박영준의 「종각」은 기독교 소설이며 우리 문학에서 드물게 보는 참회의 소설로 성서적 준거를 기능적으로 수용하려 한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¹²⁾

윤혜정은 「종각」에 나타난 죄와 구원의 문제는 복음의 핵심을 간과하지 못한 채, 윤리적인 한계에 머무르고 있어, 신의 구속력에 별다른 장치를 두지 않은 인간 본위의 흐름”이라고 언급하였다.¹³⁾

정창범¹⁴⁾은 「종각」을 기독교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대체로 죄의식에 사로잡힌 고뇌의 인간상¹⁵⁾, 죄의식에 몸부림치는 고행자적 인간상¹⁶⁾ 등 죄의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원죄소설인 호손의 「주홍글씨」와 흡사하지 않느냐 하는 단편적인 평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상에서 밝혀진 것처럼 「종각」은 그 논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종각」이 주로 박영준의 소설세계를 밝히는데 부수적인 연구대상이 되어왔거나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박영준의 「종각」을 기독교 문학의 관점에서 기독교 사상의 본질인 죄의식과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는지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

11) 최병우(1997), 「한국현대소설의 미적 구조」, 민지사, p.250.

12) 김봉균(1995), “한국소설의 기독교의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p.188.

13) 윤혜정(1993), “한국 기독교소설의 죄와 구원의 양상 -〈종각〉, 〈움직이는 성〉, 〈청동의 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pp.46~47.

14) 정창범(1986), <신(神)을 향한 기도>, 「농민/종각 외」, 삼성출판사, pp.410~418.

15) 임영천(1990), “죄의식에 사로잡힌 고뇌의 인간상”, 「기독교교육」, 통권 264, pp.52~57.

16) 임영천(1996), “죄의식에 몸부림치는 고행자적 인간상”, 「신앙세계」, 30권 7호, pp.170~174.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종각」을 텍스트로 삼아 기독교 사상의 관점에서 죄의식이 등장 인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어 성격과 인간상으로 형상화되는지를 분석적으로 살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구조주의 방법에 입각하여 텍스트를 분절·요약하여 작품의 구조와 기법을 살핀 뒤, 작중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을 거쳐 인물의 제 유형과 인간상을 규명하는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적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첫째, 텍스트의 의미 구조 분석을 치밀하게 수행한다.

둘째, 작중인물의 욕망 유형을 탐색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작중인물의 성격과 인간상을 알아보고 추출한다.

넷째, 종합적 차원에서 죄의식을 통해서 바라본 구원의 의미를 살피게 될 것이다.

우선, 작품의 구조와 기법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구조주의 방법을 이용하여 텍스트의 분절과 요약, 플롯과 스토리 대비, 기법의 발견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기호학과 신학적 논리를 도입하여 욕망과 갈등의 정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물의 유형 해석과 인간상의 해명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등장인물의 욕망과 갈등구조를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인생관과 신앙관(종교관)등을 확인한 뒤 성경 속의 원형적 인물들과 비교하여 인간상들을 유형화시키고 유형분석의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론적 측면의 역사주의적 연구와 작품론적 측면의 객관론적 연구를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작가론적 차원에서 박영준의 신앙관(종교관)과 기독교적 윤리의식, 문학관, 인생관 등을, 작품론적 측면에서는 작품의 구조와 기법, 욕망과 갈등구조 등을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기독교적 인간상을 해명하는 근거로 삼았다. 끝으로,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관점에서 ‘종각’의 상징성과 주제의 세계를 살펴봄으로써 죄의식을 통해 바라본 구원의 의미에 이르고자 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죄의식 모티프가 중요한 해석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심리주의 방법론도 일부 도입하게 될 것이다.

II. 작품의 구조와 기법

1. 텍스트 분절과 요약



문학작품의 구조 분석은 먼저 이야기의 문학적 변형논리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플롯에 대한 미학적 가치평가나 기능 탐구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플롯의 기능작용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의미망의 분절과 재구성을 통하여 텍스트의 이야기 질서를 소재로서의 이야기 질서로 환원시켜 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소설의 플롯을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소설을 하나의 서사 텍스트로 전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석의 첫 단계는 최소 의미망을 분석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여 이야기를 분절하는 일이다. 서사체 이야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분석 단위는 단어나 문장의 수준이 아니라, 단락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17) 안성수(1989),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플롯연구 시론 —「배따라기」, 「狂炎 소나타」, 「운수 좋은 날」, 「날개」, 「巫女圖」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p.12.

단락은 일반적으로 서사의 기본조건인 움직임, 시간,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텍스트의 분석과 재구성을 통하여 텍스트의 이야기 질서는 소재로서의 이야기 질서를 환원시킨 뒤, 대비적 관점에서 작가의 예술 의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진전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분절 및 요약의 통한 기능 탐색은 필연적인 과정이 된다.

모두 10장으로 구성된 「종각」¹⁸⁾은 한 장이 다시 몇 개의 의미 단락을 이루며 크게 37개의 단락으로 압축 요약할 수 있다. 이제 요약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장 신앙생활

<1> 신실한 새벽 예배 준비

- (1) 광주는 새벽 교회 종소리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생각에 잠긴다.(하나님 음성 들음)
- (2) 광주는 과거에 15명의 여성을 범한 속죄의식으로 늘 15번씩 타종한다.(타종과 속죄 의식)
- (3) 광주는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목사, 전도부인, 정장로를 엄숙하게 맞이한다.(엄숙한 예배 준비)

<2> 기도와 속죄의 생활

- (4) 광주는 내세의 기원보다 현실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데 목적을 둔다.(광주의 신앙관)
- (5) 광주는 7년 동안 속죄를 위해 매일 새벽 30분 동안 기도를 한다.(속죄 기도)

<3> 회개

- (6) 광주는 교회 마당을 청소하다가 출입문 층계에서 자는 거지가 한 달 전 피아노를 구경시키고 조반을 먹여보냈던 아이임을 알아차린다.(거지소년과의 만남)
- (7) 광주는 거지애를 도둑으로 몰아 파출소로 넘기려 했던 속된 인간성을 회개한다.(회개)

18) 박영준(1972), 「종각」, 한국문학전집 15, 삼성출판사. 이 작품은 1965년 3월에서 12월까지 10회에 걸쳐 「현대 문학」에 연재된 장편소설이다. 이 연구의 텍스트는 1972년 삼성출판사에서 간행한 한국문학전집(삼성신서) 전100권 중에서 제15권으로 발간된 것을 기본 자료로 삼는다.

개)

제1장 연민과 사랑

<4> 회개의 삶

- (8) 광주의 집은 넓고 조그만 초가집이다.(가난)
- (9) 광주는 삼 년 동안 벌을 받는 심정으로 밥을 지어 왔다.(회개의 밥짓기)

<5> 아내에 대한 연민

- (10) 광주는 가사를 거드는 조숙한 경선에게서 중학시절 성에 일찍 눈땀던 자신을 회상한다.(자신과 경선의 비교)
- (11) 광주는 자신이 불구 아내와 경선을 사랑이 아닌 동정과 연민으로 대하고 있음을 안다.(연민)

<6> 되살아난 욕정

- (12) 광주는 삼 년간 금욕 생활로부터 성적 욕정이 되살아난다.(성적 욕구 회복)

<7> 김집사의 음모와 거지에 만남 (3)

- (13) 광주는 김집사로부터 감시명령을 듣고, 1년 전 목사를 폭력으로 축출한 잔인한 모습을 회상한다.(김집사의 잔인성 회상)
- (14) 광주는 군고구마를 사러 온 거지에 만남 (3)

<8> 구원에의 탄식과 성적 욕망

- (15) 광주는 고행자적 삶을 살지만 연민으로는 천당에 갈 수 없음을 알고 탄식한다.(잘 못된 신앙태도를 탄식함)
- (16) 광주는 택시 운전수한테 욕을 듣고도 반박할 수 없는 처지를 분개하며, 반창고 공장을 경영했던 때를 회상한다.(분개와 회상)
- (17) 광주는 밤에 아내를 연민이 아닌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 육체적 사랑을 시도한다.(육체적 사랑 시도)

제2장 마성과 신성

<9> 욕욕과 형벌

- (18) 삼애는 뜨거운 욕욕의 소유자였으나, 지금은 육체 마비로 애욕의 힘이 약해졌다.(삼애의 욕욕저하)
- (19) 광주는 아내를 자살하게 만든 벌을 삼애가 대신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삼애의 형벌)

<10> 성적 만족과 신앙적 열망

- (20) 광주는 삼 년의 금욕 생활을 껌으로 성적 안락을 느낀다.(성적 만족 획득)
- (21) 목사의 웃음은 타인에게까지 평화를 준다.(평화를 주는 웃음)
- (22) 광주는 그 뒤 삼애가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게 됨을 확인한다.(삼애의 변화)
- (23) 과부인 전도부인 집에는 예수의 그림과 목사 가족의 사진이 걸려 있다.(열성적 신앙)

<11> 김집사의 위선적 행동

- (24) 김집사는 부인과 심한 욕설을 하며 싸운 후 손님이 오자 친절을 다하여 물건을 판다.(비신앙인적 태도)

<12> 폭행과 화해

- (25) 경선은 매주 토요일 점심시간에 아버지 식사를 위해 군고구마 장사를 대신한다.(효도와 사랑)
- (26) 광주는 칭찬 받기 위해 두 벌뿐인 내복 중 한 벌을 거지애한테 준 경선의 뺨을 때린다.(잘못된 선행 교정)
- (27) 광주는 아내의 점심을 먹이고 경선에게 용서를 구한다.(딸에게 용서 구함)

제3장 하나의 현실관

<13> 대주의 이기주의

- (28) 대주는 지난 대학생들 데모에 모든 이들이 구경만 하던 일을 회상했다.(개인주의)

<14> 대주의 인생관

- (29) 양복점 직원인 대주는 하급 공무원의 두 달치 월급인 만원 짜리 양복을 사 입는 청년이 부럽다.(물질욕)
- (30) 처음으로 양복을 입은 대주는 삼 년 전 극장에서 망신당한 일과 현재 윤대희가 자기를 Z 대학 졸업생으로 믿는 이유를 생각한다.(물질욕과 위선)
- (31) 대주는 결혼할 생각 없이 여자와 즐길 생각만 한다.(육체적 쾌락 추구)
- (32) 대주는 화를 내며 나가는 손님을 나라 망치는 사람이라 욕하는 주인 김장로를 비웃는다.(김장로의 비윤리적 행위 비난)
- (33) 대주는 죄책감으로 사찰이 되어 반신 불수의 처제와 혼인한 가난한 형을 바보라고 생각한다.(대주의 이기심)
- (34) 대주는 주인 김장로를 신 때문에 손해 보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대주의 그릇된 신관 및 인간관)



- (35) 대주는 표면적인 행동만으로 신에게 아첨하는 김장로를 속으로 비난한다.(김장로의 사이비 신앙 비판)

제4장 처량한 종소리

<15> 타락한 대주

- (36) 대주는 술로 가산을 탕진한 아버지와 유산을 여자로 탕진한 형을 생각하며 술을 마신다.(타락한 아버지와 형의 삶 반주)
- (37) 대주는 형에게 대희와의 유희비를 빌려 달라 부탁한다.(비윤리적 삶의 태도)
- (38) 대주는 형이 용처를 묻지 않고 돈을 준 이유가 회개할 기회를 주려는 것임을 안다.(형의 신앙을 비웃음)

<16> 타락한 선희

- (39) 목사 딸인 대학생 선희는 여관에서 남자와 자다가 임검에 붙들려 온다.(문란한 사생활)

<17> 목사의 사표 제출

- (40) 목사는 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김장로에게 사표를 낸다.(목사의 사표 제출)

<18> 사태 수습

- (41) 정장로는 딸의 행동은 아버지의 책임이 아님을 강조하며 사태를 수습한다.(사태 수습 노력)

<19> 방화

- (42) 거지애가 교회 신발장에 불을 내자 놀란 광주는 웃옷을 벗어 불을 끈다.(거지애의 방화)
- (43) 광주는 불 끄는 데만 열중하다 거지애를 놓치자 그 책임감으로 종소리까지 처량하게 들린다.(광주의 책임의식)

제5장 정신적인 고아들

<20> 김집사의 추궁

- (44) 광주는 김집사에게 방화범을 놓친 것을 추궁 받는다.(방화범 체포실패 추궁)

<21> 삼애의 발병

- (45) 광주는 예배 중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간다.(아내 발병 소식)
- (46) 광주는 아내의 아픔이 삼 년만에 자궁이 쇼크를 받은 데 따른 통증이라 생각한다.(발병원인 인지)

<22> 죄의식의 각성

(47) 광주는 죄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저야 한다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설교 통한 죄의식 각성)

<23> 신앙적 구원의 욕구

(48) 광주는 방화한 거지애에게 같이 살자고 제의 하지만 도망친다.(거지의 도피)
(49) 광주는 자유를 갈망하여 부모와 집을 부정하는 선희와 거지애를 정신적 고아라 생각한다.(정신적 고아 인식)

제6장 고독한 일들

<24> 연민

(50) 경선은 국수를 삶다가 손을 데어도 아파하는 표정 없이 어머니의 점심을 거른다.
(경선의 사랑과 효심)
(51) 전도부인은 광주에게 선희를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전도부인의 요청)
(52) 경원은 엄마를 병신이라고 놀리는 친구를 때린다.(경원의 사랑과 효심)
(53) 전도부인은 선희에게 신앙만이 고독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득한다.(신앙을 통한 선희 설득)

<25> 죄의 유혹과 발병

(54) 광주는 사귀던 여자와 헤어졌다며 지껄이며 우울해하는 대주에게서 외로움을 느낀다.(죄에 빠진 대주)
(55) 광주는 아내와의 육체적 사랑 행위로 자궁탈출을 일으키게 한다.(과도한 성행위와 발병)

제7장 착잡한 의식 세계

<26> 선희와 대주의 만남

(56) 선희는 취직 부탁을 위해 예고 없이 양복점으로 대주를 찾아온다.(만남)
(57) 대주는 선희의 솔직함과 고집에 호감을 느낀다.(호감)

<27> 정육의 억압과 탄식

(58) 광주는 성불구자가 된 아내로 인해 마음의 병을 앓고, 단육책이 필요함을 느낀다.
(단육책 강구 조짐)
(59) 광주는 엄마에게 팔을 심하게 꼬집혀 울고 있는 경선을 보고 분노하지만 성적 불구를 자각한 신경질이라 생각한다.(아내의 욕구좌절과 공격성)

(60) 광주는 정육을 이길 힘을 주고 아내를 미워하지 않게 해 달라며 밤새워 기도한다.(단육을 위한 기도)

(61) 외박한 광주를 의심하는 아내를 보며, 가난으로 인해 아내의 병을 치료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다.(탄식)

<28> 선희와 대주의 외박

(62) 목사부인은 선희와 대주의 외박을 확인하고 탄식한다.(성적 타락 탄식)

제8장 불행과 허무

<29> 대주의 타락과 연민

(63) 광주는 선희와 외박한 일이 죄임을 깨닫게 하려하지만 대주는 끝까지 맞선다.(죄의식 불자각으로 인한 갈등)

(64) 대주의 늦은 귀가에 광주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인간이라 생각한다.(동생의 타락과 탄식)

<30> 오해와 음모

(65) 목사는 목회를 그만 두기로 결심하고 전도부인의 사임을 만류하기 위해 찾아간다.(목사의 사표 결심)

(66) 전도부인은 남편과 사별한 후 오 년 동안 신앙적으로 의지해온 목사를 다시 만날 수 없음에 그의 가슴에 안겨 오염한다.(전도부인의 포옹과 오염)

(67) 김집사와 광주는 이 장면을 훑쳐보고 놀란다.(오해의 소지 발견)

<31> 일기책으로 인한 갈등

(68) 삼애는 경선이 과거 비밀이 들어 있는 일기책을 두 번 읽었음을 알고 격분해 하며 내쫓는다.(비밀누설)

제9장 종장

<32> 죄의식과 허무감

(69) 경선은 생모가 자살하고, 삼애가 이모라는 사실을 알고 집을 나간다.(가출)

(70) 광주는 경선의 고통과 슬픔을 생각할 때 죄를 용서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죄의식 강화)

(71) 실의에 빠진 광주는 새벽종을 치며 부르짖지만 대답 없음에 중단한다.(신앙적 허무 느낌)

<33> 경선의 가출

- (72) 광주는 교회당에서 자고 있는 거지애와 경선을 발견한다.(딸 발견)
 (73) 경선은 귀가를 거부하고 거지애와 함께 고아원에 가기로 택한다.(딸의 귀가 거부)

<34> 죄의식의 자각과 뉘우침

- (74) 광주는 아내를 죽이려고 식칼을 샀지만, 전도부인을 만나 중지된다.(아내 살해 기도 중지)
 (75) 목사는 선회의 두 번째 가출로 절망한다.(선회의 가출과 절망)
 (76) 광주는 천사 같은 얼굴로 염려하는 전도부인을 보며 자기가 극악한 인간임을 알게 된다.(광주의 반성과 죄의식 자각)
 (77) 광주는 아내에 대한 증오심이 성적 욕구불만이었음 깨닫게 된다.(증오심의 자각)
 (78) 경선이 고아원에 간 것을 안 삼애는 데려오라고 애원한다.(삼애의 뉘우침)
 (79) 광주가 선회와 외박한 대주를 찾아가는 것은 전도부인과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이다.(사랑과 존경)

<35> 대주의 공금 탈취와 사직요구

- (80) 광주는 양복점에서 대주가 십 만원 짜리 수표를 가지고 도망친 것을 안다.(대주의 수표 탈취와 도주)
 (81) 광주는 고아원에서 경선과 거지애(명소)를 데려온다.(거지애 입양 (만남 7))
 (82) 김장로는 광주에게 동생 대신 배상하고 사찰직을 그만둬라고 요구한다.(사직요구)

<36> 목사의 누명 벗기

- (83) 김장로와 김집사는 목사와 전도부인을 부정한 관계로 누명을 씌워 교회를 떠나라고 요구한다.(부당한 사직 요구)
 (84) 목사가 “오해를 받고 떠날 수 없다”하자 김집사가 먹살을 잡는다.(김집사의 폭행)
 (85) 대주와 선회는 불잡히고, 광주의 증언으로 목사는 누명을 벗는다.(누명 벗음)

<37> 교회를 떠나는 목사와 광주

- (86) 목사와 광주는 이삿짐을 싣는다.(떠날 준비)
 (87) 마지막 새벽종을 치는 광주는 죄 용서 받기를 갈망한다.(죄사함 갈망)

이상의 요약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시퀀스로 묶어보면, 이 소설은 I. 신실한 광주의 신앙생활(1-3)→ II. 사랑과 연민(4-8)→ III. 평화와 다툼(9-12)→ IV. 대주의 인생관과 그릇된 신관(13-14)→ V. 타락과 순수(15-19)→ VI. 신앙적 구원의 욕구(20-23)→ VII. 사랑과 아내의 발병(24-25)→ VIII. 대주와 광주의

성적 욕망 추구방식(26-28)→ IX. 갈등과 음모(29-31)→ X. 죄의식 자각과 사랑실천(32-37) 순서로 이야기의 의미망을 떠올릴 수 있다.

2. 플롯과 스토리 대비

스토리는 소재의 시간 순서에 따른 배열로서 플롯을 통해서만 환원될 수 있다. 여기서 플롯은 원소재를 예술적인 이야기로 재구성한 것을 가리킨다.¹⁹⁾ 따라서 스토리가 소재로서의 이야기라면, 플롯은 그 소재를 미적으로 변형시킨 예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플롯의 의미작용과 미적기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의 환원과 대비과정이 필요하다.

스토리를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요약물 통해 플롯의 이야기 질서로 정리한 뒤, 그것을 다시 사건(이야기)의 발생 시간순서로 되돌리면 스토리의 질서(story-line)가 된다.

이렇게 요약된 두 가지의 이야기 질서는 동일면상에 상하로 배열하여 시간 순서에 맞게 대비시켜 보면 <그림 1>처럼 나타난다.²⁰⁾ 여기서 변형원리의 탐구를 위해서는 플롯의 이야기 배열순서와 스토리의 순서를 대비하여 삽입된 미적 기법을 찾아내고, 그 기능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플롯의 이야기 배열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플롯>

<1> 신실한 새벽 예배 준비→ <2> 기도와 속죄의 생활→ <3> 회개→ <4> 회개의 삶→ <5> 아내에 대한 연민→ <6> 되살아난 욕정→ <7> 김집사의 음

19) 안성수(1999), 「현대소설의 교수방법과 표상형식 - <그림 지도법>을 중심으로-」, 『白鹿論叢』 第1輯, 제주대학교, p.24. 여기에서 필자는 플롯과 스토리와 대비 과정에서 “스토리를 플롯으로 변형시켜 재구성하기 위해 도입된 온갖 미적 창조기법들이 발견되고, 발견된 기법들은 작가의 예술적 창작의도나 텍스트의 의미구조와 관련시켜 해명하면 플롯의 미학성을 밝혀내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20) 플롯과 스토리의 대비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체사레 세그레의 논문, “설화분석·설화논리 및 시간”에 제시되어 있다. 김병욱, 최상규 역(1983), 『현대소설의 이론』, 대방출판사, pp.69~80.

모와 거지애(만남 3)→ <8> 구원에의 탄식과 성적 욕망→ <9> 육욕과 형벌→ <10> 성적 만족과 신앙적 열망→ <11> 김집사의 위선적 행동→ <12> 폭행과 화해→ <13> 대주의 이기주의→ <14> 대주의 인생관→ <15> 타락한 대주→ <16> 타락한 선희→ <17> 목사의 사표 제출→ <18> 사태 수습→ <19> 방화→ <20> 김집사의 추궁→ <21> 삼애의 발병→ <22> 죄의식의 각성→ <23> 신앙적 구원의 욕구→ <24> 연민→ <25> 죄의 유혹과 발병→ <26> 선희와 대주의 만남→ <27> 정육의 억압과 탄식→ <28> 선희와 대주의 외박→ <29> 대주의 타락과 연민→ <30> 오해와 음모→ <31> 일기책으로 인한 갈등→ <32> 죄의식과 허무감→ <33> 경선의 가출→ <34> 죄의식의 자각과 뉘우침→ <35> 대주의 공금 탈취와 사직요구→ <36> 목사의 누명 벗기→ <37> 교회를 떠나는 목사와 광주.

플롯이 소재를 예술적으로 변형시키는 2차 이야기의 생성원리라고 한다면 텍스트의 이야기 배열질서는 곧 플롯의 배열순서가 된다. 그러므로 바로 위에서 추출해낸 의미망은 플롯의 방법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 배열순서를 절대시간 순서로 환원시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스토리의 형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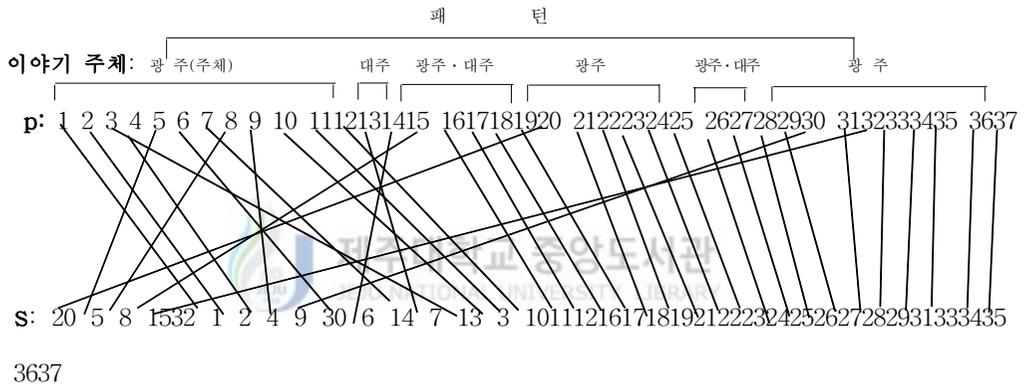
<스토리 라인>

<20> → <5> → <15> → <8> → <32> → <1> → <2> → <4> → <30> → <9>
 → <6> → <14> → <7> → <13> → <3> → <10> → <11> → <12> → <16> →
 <17> → <18> → <19>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1> → <33> → <34> → <35> → <36> → <37>

이제, 플롯과 스토리 라인을 대비시켜 보면 이야기의 미적 변형 과정에서 삽입된 다양한 소설의 기법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간착오, 패턴, 콜라주, 시점 등의 원리가 중요한 창작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여기서 숫자 번호는 앞에서 요약 제시한 시퀀스의 명칭이다. 시간착오는 주로 소급제시와 요약반복서술, 단회서술, 감속 등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쓰이며, 사전제시는 시퀀스 5에서 찾을 수 있다. 패턴은 크게 속죄와 구원의 패턴(시퀀스 5, 9, 18, 29), 실천적 사랑의 자각 패턴(시퀀스 3, 7, 19, 23, 33, 35), 일상적 속죄 패턴(시퀀스 1, 2, 3, 4, 7, 8) 등 3 가지가 발견된다. 콜라주는 시퀀스 5와 34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의 기능과 의미작용에 대한 소설 미학적 논의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시간착오> 1 : 소급제시, 요약반복서술, 2 : 소급제시, 요약반복서술, 3 : 소급제시, 4 : 소급제시, 요약반복서술, 5 : 소급제시, 사전제시, 6 : 소급제시, 7 : 소급제시, 8 : 소급제시, 14 : 소급제시, 15 : 소급제시, 20 : 소급제시와 단회서술, 30 : 소급제시와 단회서술, 32 : 소급제시와 감속.

<패턴> ① 속죄와 구원의 패턴 : 5, 9, 18, 29. ② 실천적 사랑의 자각 패턴 : 3, 7, 19, 23, 33, 35. ③ 일상적 속죄 패턴 : 1, 2, 3, 4, 7, 8.

<콜라주> 5, 34.

<그림 1> 플롯과 스토리 대비

3. 기법의 발견과 그 의미

작가가 소설을 창작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세계와 자아를 재구성하는 일이다. 문학적 배열이라는 조건에 의해 작품에서 압축과 구성과 형식의 효과를 강조할 때 작가는 시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²¹⁾

시간착오는 순서, 지속, 빈도에 관한 문제로서 소설 속에서 플롯 혹은 담화와의 시간과 스토리의 시간상에 차이와 이탈 정도를 의미한다.²²⁾

첫째로 ‘순서’의 시간착오에서는 소급제시와 사전제시 기법을 볼 수 있다.

소급제시는 이야기의 진행을 과거로 되돌리는 수법이다. 「종각」에서는 서장(신앙생활)에서 “칠 년 전 자진해서 사찰이 된 광주는 과거에 열 다섯 명의 여성을 범한 속죄의식으로 언제나 열 다섯 번씩 타종하며 그들을 위해 매일 삼십 분씩 기도한다“와 같은 서술을 통해 화자의 서술시점이 현재→ 과거(회상)→ 현재→ 과거(회상)→ 현재로 시간의 역전현상이 발견된다. 칠 년 동안 반복된 타종과 기도생활이 공개되고, 한 달 전 조반을 먹여준 거지에 이야기도 소급하여 제시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이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중간에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 ① 광주는 옛날 중학교 일학년 때 국민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소녀의 손을 잡아본 일이 있었다.²³⁾

21) 한국현대소설학회(1994), 「현대소설론」, 평민사, p.166에서 재인용.

22) 츠베탕 토도로프(1978), 「구조시학」, 광광수 역, 문학과지성사, p.65.

여기서 쥘레트는 토도로프가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부른 것을 ‘텍스트 순서’로 ‘이야기되는 시간의 순서’를 ‘스토리 순서’로 말한다. 역시 ‘시간착오’를 ‘시간모순’으로 ‘예측’을 ‘사전제시’로, ‘추상’을 ‘소급제시’로 부르고 있는바, 이 논문에서 이들을 같은 성질의 용어로 간주하기로 한다.

S. 리몬-케년(1985), 「소설의 시학」 최상규 역, 문학과지성사, p.74. ; 한국현대소설학회(1994), 전게서, p.168에서 재인용.

23) 「종각」, 전게서, p.34.

- ② 과거에 많은 방탕을 했었다. 그 죄 값으로라도 금욕의 고통을 이겨 나가야 한다. 그것을 이길 때 비로소 자기는 과거의 자기와 다른 인간이 된다.²⁴⁾
- ③ 자기도 물욕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남만 못지 않게 살 자신이 있다. 부모의 재산을 전부 탕진해 버렸을 때 그는 당시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반창고 공장을 만들어 돈벌이를 했었다. 지금도 발을 벗고 나서기만 하면 남 못지 않게 살 자신이 있다.²⁵⁾
- ④ 삼 년 전의 삼애를 생각했다. 병에 앓아 눕기 전 삼애는 뜨거운 불꽃이었다. 가까이 하면 온 몸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뜨거운 키스를 해주었었다. 그 사랑을 느낄 때 광주는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다.

- (중략) -

그러나 지금 삼애는 정열을 잃고 있다. 오직 수동적일 뿐이다. 애정에 목마른 사람 같지도 않다. 육체의 마비로 애정의 열이 희박해 진 것이라고 해석되었다.²⁶⁾

- ⑤ 신애가 죽은 뒤부터 계속해 온 죄의식 속의 괴로움으로 광주는 한강에 나가 몸을 던진 일이 있었다. 그때 그는 죽은 것으로 알았었다.²⁷⁾

인용문 ①에서 광주는 남달리 성에 대하여 조숙했던 중학교 일 학년 때를 회상한다. 그 성적 조숙함이 자신의 방탕한 삶의 시발점이 되었음을 깨닫고 있다. 따라서 나이에 비해 조숙한 행동을 하는 경선이를 볼 때 광주는 자기 탓 같아 경선에게 연민을 느낀다. 인용문 ②에서는 삼 년 동안 반신불수로 누워 있는 아내로 인해, 금욕의 고통을 겪고 있는 광주는 과거의 죄를 속죄하고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 인내하려는 강한 의지를 엿 볼 수 있다. 인용문 ③은 물욕 없이 굳고구마 장사를 하는 광주에게 택시 운전수는 경삼이를 칠 뻔 하자 심한 욕설을 한다. 이에 격분한 광주는 반창고 공장을 했던 과거를 회상하나, 곧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 이를 볼 때, 광주의 생활은 조금씩 종교적 죄의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용문 ④는 불구인 아내를 삼 년 동안 연민으로 대하고 있음을 깨닫자, 정상적인 부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육체

24) 상계서, p.46.

25) 상계서, p.60.

26) 상계서, p.65.

27) 상계서, p.68.

적 사랑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삼 년 전의 삼애의 모습과는 전혀 다름을 느낀다. 인용문 ⑤는 전처의 자살로 괴로워하던 광주는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기독교에 입문하게 된다.

이처럼 소급제시는 삶의 의미 변화와 함께 과거에 교회 사찰이 되기까지 광주의 죄의식을 누적적으로 독자들에게 보여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급제시를 통한 죄의식의 누적적 환기는 주인공로 하여금 구원의 목표와 종교적 죄의식의 깨달음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소설 미학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사전제시는 발화의 시점보다 미래에 발생하는 이야기를 미리 끝어다 쓰는 것을 말한다. 다음 인용문은 사건제시의 한 예가 된다.

광주가 밥상을 들고 들어가는데도 머리를 빗기우노라고 눈을 껌벅이고 있는 아내를 볼 때 집안에서 대소변을 보는 망령 난 팔십 노인을 연상한다.²⁸⁾

이 장면은 지금 눈앞에서 경선이 엄마의 머리를 빗기우고 있는 동안 눈을 껌벅이고 있는 아내를 지켜보는 화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모습은 미래의 아내의 모습을 연상한다는 점에서 사전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인용문에서 ‘망령 난 팔십 노인’은 아내의 불행한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그 원인이 자신의 과거의 죄로부터 연유되었음을 환기하기 위한 기법적 고려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이 소설에서 자주 발견되는 시간착오는 지속의 기법이다. 슈네트는 ‘지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소요된 시간과 그 사건을 서술하는 데 걸린 시간과의 관계를 살핀다. 요약이 가속의 기법이라면, 묘사는 최대 감속이 된다.

이 작품에서는 광주의 삼 년 동안의 금욕 기간과 과거에 열 다섯 명의 여자를 범한 것을 한 줄로 표현한 것은 가속의 시간착오가 활용된 예이다. 즉 이것은 내면 속의 죄의식의 강도를 보여 주며, 회개가 절실한 소망임을 보여 주고

28) 상계서, p.39.

있다. 그리고 감속의 기법은 며칠 동안 지속된 광주의 부부생활을 묘사한 부분에서 발견된다. 즉, 독자들에게 작가는 그동안 주인공의 억압된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것이 죄의식의 발생과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또한 김집사, 김장로, 정장로, 대주, 선희 등의 성격과 행동도 요약의 기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 전위의 운동성과 요약 반복이 갖는 의미의 응축작용, 적절한 시간 지속의 가속과 감속은 이야기에 속도감을 붙여주고 작품을 생동감 있게 한다.

셋째로 발견되는 것은 빈도의 시간착오이다. 빈도는 한 사건이 스토리 속에 나오는 횟수와 그것이 텍스트 속에서 서술되는 횟수와와의 관계를 의미한다.²⁹⁾

여기에는 한 번 일어난 일을 한 번 이야기하는 ‘단회서술’과 한번 일어났던 일을 n번 반복하는 ‘중첩반복서술’ 그리고 n번 일어났던 일을 한 번에 이야기하는 ‘요약반복서술’이 있다. 텍스트에서 주인공 “광주가 삼 년 동안 밥 짓는 일을 벌을 달게 받는 심정으로 계속해온 것”은 삼 년 동안에 걸친 반복적인 행위가 한 번에 서술되는 것으로 ‘요약반복서술’에 들어간다.

다음은 요약반복서술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① 광주는 언제나 종을 열 다섯 번씩 친다.³⁰⁾

29) 스토리 속에 나오는 사건이 텍스트 속에 얼마나 자주 진술되는가가 바로 빈도이다. 이 빈도는 순차(ordre), 지속(dure)과 함께 주네트가 구분한 담론-시간과 이야기-시간의 관계의 하나로 구조시학의 시간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야기-시간과 담론-시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주네트에 의하면 텍스트 속에 나타나는 빈도는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① 단일적(singularly) : 한 번 일어났던 일을 한 번 이야기하는 것.

② 복수 단일적(multi-singularly) : n번 일어났던 일을 n번 서술하는 것.

③ 반복 나열적(repetitive) : 한 번 일어났던 일을 n번 반복하는 것.

④ 반복 요약적(iterative) : n번 일어났던 일을 한 번에 요약하여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어떤 사건이 반복될 때 이것이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유념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위치나 상황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그 사건의 의미에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각이나 문체, 지속 등에 따라서도 변화되게 마련이다. 한용환(1992), 「소설학 사전」, 고려원, pp.197~199.

- ② 그러나 종을 치며 죄의식 속에서 산 지 칠 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하느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엄하기는 하나 친밀감을 느끼는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다.³¹⁾
- ③ 그의 기도가 그 고통에서 출발되었고 칠 년 동안의 기도가 온통 그것뿐이었다. 지금은 남을 위한 기도도 드리고 있지만 몇 해 동안은 오직 그미와의 관계에 대한 것뿐이었다. 죄를 지은 자기를 용서하고 죄에서 오는 고통을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 처음 기도를 드릴 때는 삼애도 죄인이라고는 별로 생각지 못했었다. 삼애는 자기처럼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³²⁾

광주의 행동양상을 시간과 연결시켜 볼 때 종을 언제나 열 다섯 번치는 행위와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 거지애와의 만남과 헤어짐, 삼 년 동안 밥 짓는 일을 한 행위 등은 광주의 헌신적이고 지속적인 회개와 속죄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서술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작가가 시간착오기법을 많이 쓴 이유로는 첫째, 종교적 차원에서의 죄의식의 강도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둘째, 종교적 죄의식에 대한 보상의 욕구를 강렬하게 환기시켜 표현하기 위한 의도이며, 셋째, 이러한 종교적 죄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회개, 혹은 반성적 상황에 이르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광주는 자책감과 종교적 죄의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며, 목사·전도부인과 김장로·김집사의 갈등 과정에서 진실한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잃지 않게 된다.

2) 패턴기법

패턴은 의미 있는 사건이나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뜻한다. 패턴은 단순한 언어나 서술상의 기계적 반복이 아니라, 주제를 형상화하거나 인물의 성격 창조

30) 「종각」, 전계서, p.9.

31) 상계서, p.9.

32) 상계서, p.14.

등에 관여하는 플롯의 공간화 기법이다. 패턴의 기능이 소설의 주제형성에 기여하면 논리적 패턴으로, 사건과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인물의 성격발전에 기여하면 심리적 패턴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³³⁾

(1) 속죄와 구원의 패턴

이 소설에는 성경에서 죄를 범한 인물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성경 속에서의 죄인들은 소설 속의 주인공과 죄의식의 차원에서 유사성을 띤 상징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패턴은 범죄(sin) → 형벌(punishment) → 자비(mercy)의 의미구조를 보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주제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패턴은 이야기의 의미구조에서 발견되는 속죄와 구원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성경 “창세기”³⁴⁾의 창조와 타락 이야기이다.

하느님이 남자의 갈비 하나를 뽑아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 때 하느님은 여자가 남자의 반려요, 협조자라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삼애가 자기의 반려도 협조자도 안 되는 지금 그미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가 아니다.³⁵⁾

광주는 불구자가 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죄가 아니라 아내 구실을 못하는 아내에게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다가,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러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고는 불구의 아내를 끝까지 희생적인 사랑으로 돌보며 가정을 화평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편의 이야기 구조와 유사성을 보여준다.

하나님³⁶⁾은 에덴동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아담의 쓸쓸함을 보고 깊이 잠든

33) 정한숙(1973), 「소설기술론」, 고려대학교출판부, p.178

34) 「구약성경」, “창세기”, 1장과 2장.

35) 「종각」, 전계서, p.42.

36) 이 연구에서는 ‘하나님’과 ‘하느님’의 용어를 두 가지 모두 사용한다. 기독교 성경을 언급할 때는 ‘하나님’으로, 「종각」을 언급할 때는 작가의 표현대로 ‘하느님’으로 사

아담의 갈빗대를 한 개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아담은 이브를 처음 만나는 기쁨³⁷⁾을 노래하며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나 에덴동산에서 가장 약삭빠르고 교활한 뱀의 유혹에 육체의 나약성을 상징하는 이브의 심성(감성)이 결탁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을 낳았고, 이 교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을 초래했다.³⁸⁾ 이런 불순종의 결과로 이 세상에는 죽음과 온갖 악(슬픔과 고통)이 들어오고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원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실낙원을 추방함으로써 범죄 → 형벌 → 구원의 패턴을 보여준다.³⁹⁾

둘째로,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미가 반신불수가 된 삼 년 전부터 광주는 자기의 죄가 그리고 자기와 공범자인 그미의 죄가 합쳐져서 그미가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내만이 받을 벌이 아니다. 자기도 응당 받아야 할 벌이다. 아니 자기가 아내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아내 혼자만이 벌을 받은 데 대해 광주는 아내를 예수 당시의 여인보다도 더 불쌍하게 생각했다. 간음을 했으면 남자와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 여자만이 둘을 맞아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⁴⁰⁾

광주는 아내 혼자만 벌을 받고 반신불수가 되자 아내에 대한 깊은 죄의식으로 짓눌리게 된다. 그로 인해 속죄를 위한 광주의 삶은 시작되고 죄를 범하지

용한다. 이것은 성경의 표현과 텍스트의 표현을 모두 존중하기 위함이다.

37) 「구약성경」, 「창세기」, 2:23.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38) 「구약성경」, 「창세기」, 3:4~7.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39) 아담과 이브는 죄의 결과로 수고와 고생을 겪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줌으로써 여전히 그들을 사랑함을 보여준다.

40) 「종각」, 전계서, p.15.

않도록 노력하는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주인공의 정신적 깨달음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죄의식의 각성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구원을 향한 갈망을 낳게 하는 동기가 된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며 법석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육체적 간음 행위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간음한 남녀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다.⁴¹⁾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한복음 8장 7절)

이 말을 듣고 온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버리고 돌아가고 예수는 죄 지은 여인을 일으켜 세우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돌아가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말한다. 당시의 사회윤리로 볼 때 간음은 무서운 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는 용서와 구원을 약속한다.

셋째로 카인과 아벨⁴²⁾의 이야기도 동일한 패턴의 이야기로 암시된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도 그러했지만, 이 이야기도 ‘죄→ 형벌→ 자비’라는 의미구조에 의해 패턴을 형성한다.

「교역자로서 자기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시키지 못한 책임을 느낍니다. 정말 책임을 져야 할 문쩍니다. 장로님 이하 여러 교우들의 너그러운 이해가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부터 이 교회를 떠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정장로가 목사의 말을 막았다.

「카인이 자기의 형 아벨을 죽였지만 카인의 아버지가 그 죄의 책임을 졌다는 말을

41) 한영제 편(1982), 『기독교대백과사전』, 기독교문사, p.192.

42) “창세기“, 4:1~16. 카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들인데, 형인 카인은 밭일을 하기 좋아하여 농사꾼의 조상이 되었고, 동생인 아벨은 양을 길러서 양치기의 조상이 되었다. 어느날 카인과 아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바친 양의 첫 새끼는 받고 카인이 바친 땅에서 수확한 생산품은 받지 않았다. 카인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벨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을 돌로 찢어내 돌로 쳐 죽였다.

듣지 못했습니다. 특히 애들은 부모들의 감화 권내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기성세대에 대해 반항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는 특권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식에 대한 책임을 그 부모가 질 수는 없습니다.⁴³⁾

목사의 딸 선희가 남자와 외박하고 인검에 붙들리자 목사는 교역자로서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나려 하자, 정장로는 카인의 죄를 아버지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목사를 설득한다. 이처럼 선희의 방탕함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목사인 아버지의 죄의식으로 인해 오히려 사건의 해결에 이르게 한다.

성경은 카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동생과 이웃을 거스리는 죄(객관적인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의 이마에 표를 찍어 주었다. 이러한 상징적 행동은 나다니엘 호오돈의 소설 「주홍글씨(the scarlet letter)」에서도 발견된다. 헤스터 프린이 일상 가슴에 달고 다니던 간음의 표상인 주홍글씨 ‘A’(adultery)자는 ‘죄의 표’(mark of sin)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표상하는 ‘사죄의 표’(mark of forgiveness)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의 뜻이 담긴 ‘용서의 표’이기도 하다.⁴⁴⁾

넷째로, 「소돔과 고모라」⁴⁵⁾의 이야기가 나온다.

43) 「종각」, 전계서, p.194. 이 작품에 인용된 <카인과 아벨>이야기에서는 성경과 다르게 형과 아우가 뒤바뀌어 있다. 따라서 필자는 성경을 준거로 카인을 형, 아벨은 동생임을 밝혀둔다.

44) 조신권(1986), 「성서와 문학」, 신원문화사, p.24.

45) “창세기”, 19 : 15~29. 사해 남단 싯딤 골짜기에는 아드마, 스보임, 소알, 소돔, 고모라의 다섯 도시가 있었고, 그곳은 룿이 보기에 그렸던 것처럼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다. 물이 넘쳐나며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다. 것처럼 그곳은 지리적으로 물이 넘쳐났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지만, 반면에 넘쳐나고 풍요로운 삶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았으며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일에 몰두했고, 남녀노소 모두가 타락했다. 다음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장면이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향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엮어 멸하셨더라”. “창세기”, 19 : 24~25.

그런데 일찍 돌아오지도 않은 것은 죄에 대한 의식이 회박하기 때문이다. 죄를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죄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 인간은 올바른 감성(感性)도 올바른 이성(理性)도 잃어버리게 된다. 도리어 죄만을 향락하게 된다. 죄를 향락하게 되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라가 되고 만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구해보려고 하느님에게 간구하고 천사님에게 부탁했으나 소용없었다. 음부에 떨어지고야 만 소돔과 고모라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은 벌을 받고야 만 것이다.

문명이 극치에 달하고 사람이 향락에 빠진 로마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부에 떨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망하고야 말았다. 인간은 최후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⁴⁶⁾

광주는 선희와 함께 외박한 동생 대주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당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타락(성적)한 대주는 일찍 귀가는커녕 밤 열시가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잘못을 뉘우치길 간절히 원하지만 죄에 대해 너무나 둔감한 대주를 보며 희망 없는 인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주가 선희와 성적 유희를 위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구속되었을 때, 광주가 전 재산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는 마음가짐과 대주를 용서하는 모습은 사랑을 통한 용서의 한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광주의 태도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생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 멸망하는 불행을 자존하지 말기를 바라는 신앙적 믿음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성경은 롯이 불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기록한다.⁴⁷⁾ 롯을 찾아온 두 천사는 소돔 성을 멸하되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임을 밝혔다. 롯은 그 사실을 딸들과 사위들에게 전하며 급히 소돔을 떠날 것을 말하였지만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또한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어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된다. 이처럼 욕신의 쾌락을 좇았던 소돔 사람들은

46) 「종각」, 전계서, p.293.

47)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엮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엮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창세기”, 19 : 29.

모두 큰 죄에 빠져 멸망하고, 결국 롯과 두 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첫째로 아담과 이브처럼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맺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 임무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작품에 인용된 「창조·타락 이야기」, 「간음한 여인」, 「카인과 아벨」,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속에는 인간이 큰 죄(sin)를 짓고 나서 형벌(punishment)으로써 속죄의 길을 가다가 결국 자비를 통해 용서와 구원을 받는 공통의 구조와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소설도 작가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범죄→ 형벌(속죄) → 자비(구원)의 구조를 패턴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소설 속에서 인용된 성경 이야기는 첫째, 자기의 죄의식에 대한 자각과 회개를 유도하고, 둘째, 교회 전체에 대한 회개와 자각의 동기부여, 셋째, 구원의 욕구와 갈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제 형성에 기여하는 논리적 패턴으로 기능 한다고 볼 수 있다.

(2) 실천적 사랑의 자각 패턴



이 작품에서는 광주와 거지애가 만나고 헤어짐의 장면이 반복되어 일곱 번 나오고 있다.

- 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새벽, 광주가 기도를 다 끝낸 뒤 마당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애가 자기 모르게 살그머니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다. 광주는 아무 것도 모르고 마당 청소를 끝낸 뒤 전등을 끄려고 교회당에 들어갔다가 피아노 옆에 서 있는 그 소년을 발견했다.⁴⁸⁾
- ② 그런데 그 거지애가 지금 다시 광주에게 붙잡혔다. 나오라는 교회에는 나오지 않고 교회 한편 모퉁이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아무래도 피아노를 훔치려는 계획을 품고 있는 것이 단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48) 「종각」, 전계서, pp.22~23.

돌려보내지 않는다.)⁴⁹⁾

광주와 거지애와의 만남의 시작은 광주가 한 달 전 일을 회상하며 시작되고 있다. 그 당시 거지애를 불쌍히 여겨, 피아노를 구경시켜주고, 조반을 먹이는 등 사랑을 베풀며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 하였지만 거지애는 나오지 않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오늘 새벽 교회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를 발견함으로써 두 번째 만남이 서술되고 있다. 광주는 도둑이라고 의심하여 거지애를 잡아서 협박하고, 파출소로 넘기려하다가 곧 이를 뉘우친다.

- ③ 점심때가 거의 되었을 무렵 어떤 애가 동전 열 개를 내밀며 고구마를 달라고 했다. 돈을 받으며 그 애를 보았을 때 그 애가 오늘 새벽 교회당 처마 밑에서 자던 거지애임을 알았다. 그러나 아는 체를 않고 굶직한 고구마로 다섯 개를 종이에 싸 주었다. 후하게 준 편이었다. 거지애도 광주를 아는 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구마를 좀더 달라는 말도 안 했다. 고구마 봉지를 받자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었다.⁵⁰⁾



세 번째 만남은 거지애가 군고구마를 사려고 왔다. 구태여 그 애에게 말을 붙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붙이자, 긴 대답을 피하고 슬슬 걸어간다. 광주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어린애 반 어른 반인 애라고 생각한다. 다른 애들과 같이 선금을 냈지만, 돌아갈 때는 다른 애들처럼 달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 ④ 출입문 안에 책꽂이처럼 나무로 만든 신발장에서 불길이 오르고 이었다. 휘발유를 뿌리고 성냥불을 댄졌는지 신발장 중간층에서 일어난 불길이 기운을 내어 타오르는 것이었다. 그 불이 타오르는 신장 한편 구석에는 말쑥꾸러기 거지애가 서서 불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⁵¹⁾

- ⑤ 상점에 가서 밀국수 두 봉치를 사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였다. 골목길 어귀

49) 상계서, p.25.

50) 상계서, p.55.

51) 상계서, pp.163~164.

어떤 집 처마 밑에서 깡통에 들어 있는 밥을 손으로 퍼먹고 있는 거지애를 보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완전히 잊고 있던 거지애였다. 일부러 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무런 유발 사건도 없었는데 카메라맨이 앵글을 어떤 대상에 갖다대듯 광주의 시선이 그 애의 모습 앞에 못박혔다. 그는 거지애 곁으로 걸어갔다.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애를 본 이상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가 옆에까지 다 갔는데도 거지애는 신경을 밥통에만 모으고 있었다. 「밥 먹니?」

광주가 말을 거는데도 그 애는 한 번 쳐다볼 뿐 밥통의 밥만을 손으로 건져 입속에 넣고 있었다. 광주는 그 애가 저능아가 아닌가 생각했다.⁵²⁾

교회에 방화를 한 후 도망친 거지애 때문에 광주는 김집사로부터 추궁을 당했다. 그러나 거지애가 교회에 불을 지른 이유를 생각하던 광주는 어렸을 때에 자기 집 뜰에는 꽃이 하나도 없는데, 친구네 집 뜰에 많은 꽃들을 보고 나뭇가지로 후려쳤던 일을 회상한다. 이처럼 거지애도 자기는 잘 곳도 없는데 교회당은 텅 빈 채로 있어 질투심으로 방화를 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 광주는 거지애를 귀여운 악마라고 생각했다. 그랬는데, 상점에 국수를 사러 가다가 깡통의 밥을 손으로 퍼먹는 거지애를 다섯 번째로 만나게 된다. 광주는 그 거지애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자 거지애는 도망치게 된다. 잡아갈 사람이 나타났을 순간에도 도망을 치지 않던 애가 자기를 보호하고 길러 주겠다는 말을 할 때는 도망을 쳤던 것이다.

⑥ 거지애가 잠들어 있었다. 거지애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늙이 이제는 동무 거지까지 데리고 와서 자는구나. 이러다간 거지 합숙소가 되지 않을까? 그는 거지애를 흔들려 깨웠다. 동시에 그 옆에서 자고 있는 애에게도 손을 댔다. 계집애였다. 그 계집애는 다른 애가 아닌 바로 자기의 딸 경선이었다.⁵³⁾

⑦ 광주는 경선의 손을 놓고 명소에게로 갔다. 「어떡 하지? 너 혼자 남게 되어.....」

52) 상계서, pp.197~198.

53) 상계서, pp.313~314.

명소를 동정하는 말이 달리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다. 명소는 대답 대신 몸을 돌려 버렸다. 나 같은 거 상관할 것 없지 않느냐고 반항하는 것 같았다. 광주는 잠시 명소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다가, 「명소야, 나하구 같이 가자. 넉넉하지는 못해두 경선이랑 나랑 같이 살자.」 하고 그의 손을 힘껏 쥐었다. 그냥 두고 오면 명소는 반드시 고아원을 도망칠 것이고 고아원을 도망쳐서는 다시 자기네 교회당 근처를 배회할 것만 같았던 것이다.⁵⁴⁾

그러나 경선이 집을 나가 교회 바닥에서 거지애와 같이 잠을 잔 사건은 진정한 만남으로 이끌기 위한 동기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함에 따라 광주는 거지애를 아들로 입양하는 적극적인 이웃 사랑의 행동을 보이게 된다. 결국 이러한 만남은 광주의 죄의식을 자극하고 회개하게 하려는 마음을 누적적으로 강화시켜주는 심리적 동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패턴은 심리적 패턴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3) 일상적 속죄 패턴



광주는 매일 일정한 삶(일과)의 패턴을 따라 행동한다. 그는 과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교회 사찰로서의 역할과 가난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죄의식에 대한 회개의 차원과 연결시켜 수행한다.

① 날이 밝으려면 아직 한 시간쯤 있어야 하는 새벽 네시 반.

광주는 높다란 종각 꼭대기에 매달린 아름드리의 쇠종을 한 번 우러러보고는 전선을 꼬아 만든 밧줄을 잡아당겼다.

-(중략)-

광주는 언제나 종을 열 다섯 번씩 친다. 자기가 젊었을 때 여자를 열 다섯 명 범했다는 죄의식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습관화되고 만 것이다.⁵⁵⁾

54) 상계서, p.337.

55) 상계서, pp.7~9.

② 기도를 끝냈다. 매일 거의 같은 기도를 근 삼십 분 동안 드리고 나면 높은 산에서 아침 햇살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가슴이 시원해진다. 먼지로 가득 찼던 폐부가 깨끗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무죄선고를 받고 옥문을 나오는 사람처럼 하늘을 뚝뚝하게 우러러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했다.⁵⁶⁾

③ 광주는 교회당을 나와 종각 한 모퉁이에서 싸리 빗자루를 들고 나와 교회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완전히 밝지는 않았지만 흩어져 있는 종이 조각과 낙엽들이 보일 만큼 밝아 있었다.

매일같이 모여 어린애들이 장난하고 노는 곳.⁵⁷⁾

④ 새벽종을 치고 돌아온 뒤 그가 해야 할 일은 밥 짓는 일이었던 것이다. 아내는 반신불수로 방안에 누워만 있고, 딸 경선은 이제 나이 열세 살밖에 안 된다. 동생 대주는 삼십이 다 되었지만 아직 결혼을 못했으니 광주 이외에 밥 지을 사람이 없다. 밥 지을 사람은 고사하고 부엌일을 도와줄 사람도 없다. 있다면 대주가 있지만 그는 해주는 밥을 먹고 출근하기에도 바쁠 만큼 언제나 늦잠을 잔다.⁵⁸⁾

⑤ 광주는 저녁때마다 고구마 굽는 드럼통을 그 집 마당에 옮겨다 놓는다. 그래서 고구마 부대를 내려놓고는 그 집 뜰 안으로 들어가 드럼통을 굴려 내왔다. 드럼통에는 아직 불이 살아 있었지만, 어제 저녁에 넣고 간 것이기 때문에 김집 사네 가게에서 십구공탄 하나를 사서 불을 갈았다.⁵⁹⁾

⑥ 「오늘도 하루 종일 장사를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뒤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지어먹고 설거지를 끝냈을 때는 이미 열시가 가까이 왔다. 그래도 그는 목사 사택으로 가서 목사님에게 별 일 없었느냐는 인사를 드린 뒤 교회당 안팎을 살펴보고야 집으로 돌아왔다.⁶⁰⁾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광주의 하루 생활의 단계를 크게 다섯 단계

56) 상계서, p.18.

57) 상계서, p.21.

58) 상계서, p.31.

59) 상계서, p.47.

60) 상계서, p.61.

로 설명 할 수 있다. 광주는 매일 새벽 네 시 반이면 높다란 종각 꼭대기에 매달린 교회 종을 열 다섯 번 친다. 그 뒤 종각을 나와 교회당으로 들어가서 매일 새벽 거의 똑같이 죄를 회개하고 가족을 위한 기도를 근 삼십 분 동안 한다. 기도를 마친 후 교회 마당을 청소하고 집으로 돌아온 광주는 반신불수인 아내 때문에 밥 짓는 일을 한다.(삼 년 동안 해왔음.) 아침을 먹고 나면 김집사의 잡화상 옆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한다. 장사하기 전 고구마를 경삼이에게 먼저 먹이는 것은 그의 즐거움이다. 저녁때가 되어 연탄을 갈아넣고 드럼통을 김집사 댁 뜰에 옮겨놓은 뒤,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끝내면 밤 열 시가 된다. 이런 순서로 하루의 삶을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칠 년 동안 살아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철저한 신앙인으로서 속죄와 구원을 목표로 규칙적이며 철저하게 교회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반복된 행동 패턴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실천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상적 삶의 반복적 행동은 주인공 광주에게 자신의 죄의식을 반복적으로 속죄하게 함으로써 용서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동기 부여적 기능과 성격창조 및 주제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한다. 또한 철저한 주인공의 반성적 행동과 엄격한 행동은 그의 죄의식을 종교적 구원이나 속죄의식과 연결시키기 위한 신앙적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콜라주(collage)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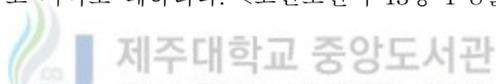
콜라주란 현실의 1차 소재들을 변형 없이 작품 속에 도입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 기법은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에 현실의 단편을 직접 삽입시키는 것을 말한다.⁶¹⁾ 콜라주는 평면적 캔버스에 입체적 물체를 도입한 20세기 미술의 혁신적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61) 나병철(1996),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p.351.

이 소설에서 콜라주 기법은 신약성경의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 13장 1~8절을 변형 없이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다.⁶²⁾

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마태복음 18장 5절>⁶³⁾

②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 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린도전서 13장 1-8절>⁶⁴⁾



①은 목사의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된다. 이른 아침에 국민학교 6학년 경선이가 아버지를 돕기 위해 자기 앞마당을 청소하는 것을 본 목사는 경선을 칭찬하고 영접함으로써 목사로서의 사랑을 보여 준다. 즉 목사는 어린이로부터 그리스도의 본질인 착함과 천진성을 배워 반성케 하여, 내일부터 스스로 청소를 하겠다고 말한다.

②는 광주가 사랑의 대한 성경 문구를 떠올리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사랑을 주었고, 구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을 냈음을 뉘우치게 된다. 이처럼 이 소설의 콜라주는 성경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중인물로 하여금

62) 신문 스크랩, 극장의 포스터, 광고 메시지, 상업 출판부, 동상의 좌대에 새긴 문안 등을 작품 속에 그대로 옮겨 놓는 기법이다. 또는 작품 속에 편지, 일기, 신문기사, 공문서, 다른 작품의 일부 등을 원형 훼손없이 일부분 고스란히 삽입함으로써 사실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법으로 활용된다.

63) 「종각」, 전계서, p.36.

64) 상계서, p.327.

자신의 과오와 죄의식을 자각하고 인정하게 하는 촉진제와 평가 기준이 되어 준다.

또한 기독교 윤리에서는 “내적 감화 없이 나타나는 외적 행동은 외식(外飾)”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 결과는 ‘위선’이며, ‘죄’가 되는 것을 성경을 직접 인용하여 깨닫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콜라주는 이야기의 사실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외에도, 작중인물인 목사와 광주로 하여금 죄의식을 자각하고 강화시켜 줌으로써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한 윤리적 충격요법과 기독교적 죄의식의 판단 기준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4) 시점과 서술분석

시점은 작가가 서술자를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관점과 거리, 위치 등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의 전달 상황에서, 누가 어떤 관점과 거리에서 이야기를 ‘보고’ 누구의 목소리로 어떻게 ‘서술’했느냐가 바로 시점과 서술의 문제가 된다.

이 소설은 3인칭 제한적 전지 시점을 주시점으로 활용하며,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⁶⁵⁾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광주·대주는 내면심리의 회상이나 반성, 생각, 느낌 등 주체로서 활용하여 보여주고 있지만, 목사, 전도부인, 정장로, 김장로, 김집사 등은 3인칭 작가 관찰자시점을 사용하여 숨은 의도를 추측할 수 있도록 객관묘사를 하고 있다.

모두 10장으로 이루어진 이 소설에서 ‘광주’가 체험한 주체(초점화자)이면서 전달의 주체(서술자)가 된 것은 서장, 1장, 2장, 5장, 6장, 8장, 9장 등 모두 7장이다. 그리고 ‘대주’가 체험의 주체이면서 전달의 주체가 된 부분은 3장 하나뿐

65) 구인환(1997), 『소설론』, 삼지원, p.239. 여기서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은 작가가 외부적인 관찰자의 위치에서 작품을 서술하는 방법으로서, 흔히 3인칭 시점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전지 전능한 신의 위치에서 자유자재로 인생이나 역사적 삶을 투시하고 형상화하는 시점이다.

이다. 그리고 ‘광주와 대주’가 체험의 공동주체이면서 전달의 주체가 된 부분은 4장, 7장인 2장이다.

특히 8장은 ‘광주’가 체험의 주체이면서 전달의 주체가 된 부분이다. 그런데 목사와 전도부인이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목사와 전도부인이 부분적으로 초점 화자와 서술자로 직접 나서고 있다. 이는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독자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술자는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원리로 묘사, 설명, 논증, 서사 등을 사용한다. 소설은 내용인 이야기를 언어로 서술한 결과물이다. 이것은 서술자의 서술과 작중인물이 주고받는 대화라는 두 층위로 나눌 수 있다. 소설의 언어는 일차적으로 작중인물들의 시각으로 착색된 대화가 이용되고, 서술자의 존재로 말미암아 해석이 가해진 언어가 사용된다.

이 소설에서는 화자가 제한적으로 주인공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전지적 시점’을 사용하여 토도로프의 언급처럼 담론이 서사를 압도하고 있다.⁶⁶⁾ 이것은 주인공의 죄의식의 생성과 회개과정과 윤리적 변화과정을 치밀하게 심리상황과 함께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다.

따라서 「종각」은 수사법상 일반적 진술로서 사건과 심경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으며, 간접화법도 역시 요약적으로 제시된 설명의 언어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⁷⁾

육십이 넘은 정장로는 선지자는 되지 못할 망정 선자자의 풍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는 가난하지 않으면서도 가난하게 산다. 돈을 곧잘 버는 것이다. 그러나 돈을 벌어서는 그 대부분을 교회에 바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 살림은 광주보다 그리 월등하지가 못하다. 적은 오막살이에서 최소한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하루에 오륙 백원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의 살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생활이다.

카야바이드 행상을 했다. 미국 깡통을 사서 팔기도 했다. 요즘은 월부 서적 판매를 하고 있다. 어떤 장사를 하든 남보다 수입을 올린다. 그러나 그 수입의 대부분을 교

66) 토도로프는 「산문의 시학」에서 소설을 예로 들어 서사와 담론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67) 김봉균(1995), 전계서, pp.176~178.

회에 바친다. 한 달에 만원 이상 교회에 바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정장로 한 사람 뿐이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다. 단 두 내외가 살 뿐이어서 생활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정장로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자기를 살찌게 하기 전에 교회를 살찌게 하려 하고 있다. 자기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느님을 생각한다.⁶⁸⁾

위 인용문은 정장로에 대하여 소개하는 장면의 일부분이다. 성격, 신분, 생활환경, 직업 등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전개에 속도감을 부여하는 서술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선회에 관한 내용은 광주가 소문을 통해서 듣고 서술한 부분들이 있다. 이것은 선회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이야기들은 객관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도 광주가 죄를 회개하고 죄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중심인물인 광주와 대주는 3인칭 제한적 전지 시점을 사용하여 내면심리의 회상이나 반성, 생각, 느낌 등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목사, 전도부인, 정장로, 김장로, 김집사 등은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여 숨은 의도만 추측할 수 있도록 객관묘사를 하여 인물에 대하여 거리감을 두어 서술함으로써 존재론적인 신비감을 자아내게 한다.

한편, 서술은 등장인물들의 성격, 사건, 생활환경, 마음속까지 요약적으로 제시된 설명 언어를 사용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고 사건의 빠른 전개를 돕고 있다. 또한 소문을 이용한 객관화 방식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윤리와 객관적 인식을 유도하며, 빈번한 과거 회상 통해 죄의식을 누적적으로 환기시켜 주는데 기여한다.

68) 「종각」, 전계서, p.160.

Ⅲ. 욕망과 갈등구조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욕망’(desire)을 갖고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유의지에 따라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며, 복잡한 내면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⁶⁹⁾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욕망을 갖는 존재요, 여러 가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갖가지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은 욕망과 행위의 관계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욕망을 가진 인물이 그 충족을 위해 움직이는 행동양식에 따라 이야기의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의식의 변화나 행동양식은 곧 이야기의 기본 구조가 된다.

소설의 기본 구조는 욕망과 갈등의 두 축이 지탱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욕망의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욕망이 달성 될 때 인간관계는 행복한 관계에 놓이게 되고, 욕망이 좌절되고 방해받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갈등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인물의 갈등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대립에서 발생하고, 한 인물이 자신의 내면 속에서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시대나 환경이 조화되지 않아서 갈등을 겪을 수 있다.⁷⁰⁾ 특히 갈등은 작중인물의 욕망 실현의 방법과 과정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갈등과 욕망을 연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항대립구조(의미작용의 기본구조)의 기본 틀을 활용하여 욕망과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어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⁷¹⁾

69) 이상우(1996), 「현대소설의 원형을 찾아서」, 애플기획, p.133.

70) 한국현대소설학회(1994), 전계서, p.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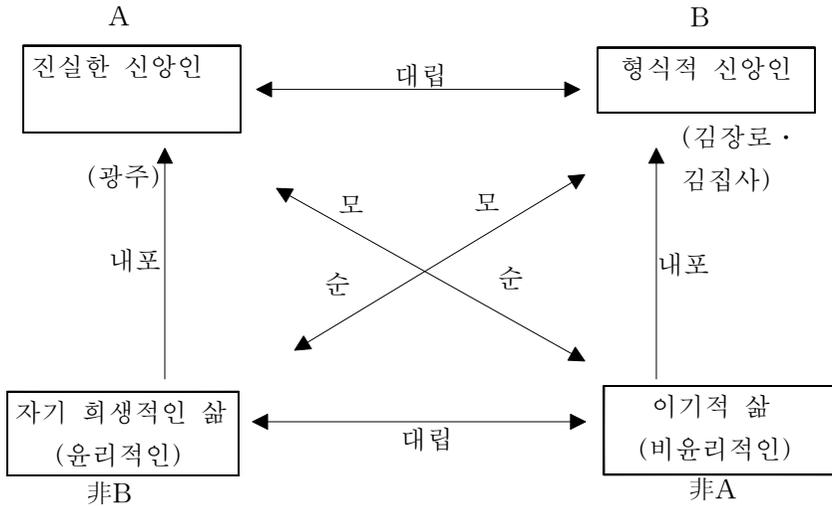
갈등구조에서는 반드시 갈등의 주체와 대립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갈등 양상은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으로 구분된다. 즉, 외적 갈등은 주체와 타자와의 갈등이므로 갈등구조는 주체와 타자(대립자, 반대자, 방해자)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내적 갈등은 주체 내부의 자아간 갈등이므로 외적 자아가 갈등 대상이 된다. 소설 속에서 갈등은 인물 상호간의 욕망의 대립 관점에서 생성된다는 점에서 욕망과 갈등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욕망과 갈등 양상은 네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 소설은 인물들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독특한 죄의식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죄의식과 신앙관은 바로 그들의 욕망 유형을 설명하고 유형화하는 준거가 된다. 「종각」의 인물군상들이 보여주는 욕망형은 크게 순종적 회개형, 탈신앙적 타락형, 순진무구한 속죄양형, 권력적 신앙인형 등으로 명명된다.

1. 순종적 회개형(최광주)

주인물 최광주는 소설의 시공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자각과 죄의식 때문에 교회의 사찰이 되어 회개와 반성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이 갈등구조는 상위 항에 ‘진실한 신앙인’과 ‘형식적 신앙인’을 대립적 의미 항으로 설정하고, 하위 항에는 윤리적인 ‘자기 희생적인 삶’과 비윤리적인 ‘이기적 삶’을 역시 대립적인 중개자로 설정하면 아래와 같은 욕망과 갈등의 대립 도형이 된다.

71) 안성수(2001), 「소설의 시학과 방법」, 미발표원고, pp.255~263.



<그림 2> 광주와 김장로(김집사)의 욕망갈등도

이 도표에서 보듯이, ‘진실한 신앙인’과 ‘형식적 신앙인’, ‘자기 희생적 삶’과 ‘이기적 삶’은 각기 대립관계를 형성한다. ‘진실한 신앙인’과 ‘이기적 삶’, ‘형식적 신앙인’과 ‘자기 희생적인 삶’은 각기 모순관계를 형성한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과 ‘자기 희생적인 삶’, ‘형식적 신앙인’과 ‘이기적 삶’은 각기 내포 관계(함의 관계)를 형성한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인인 김장로와 김집사와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진실한 신앙인인 광주는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삶과는 모순관계에 놓이므로 형식적인 신앙인과 모순관계에 있는 자기 희생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통해(중개자로 하여) 진실한 신앙인에 이르고자 노력한다.

그러한 진실한 신앙인의 징표로써 광주는 회개와 기도를 통해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인물은 순종적 회개형의 욕망 추구 양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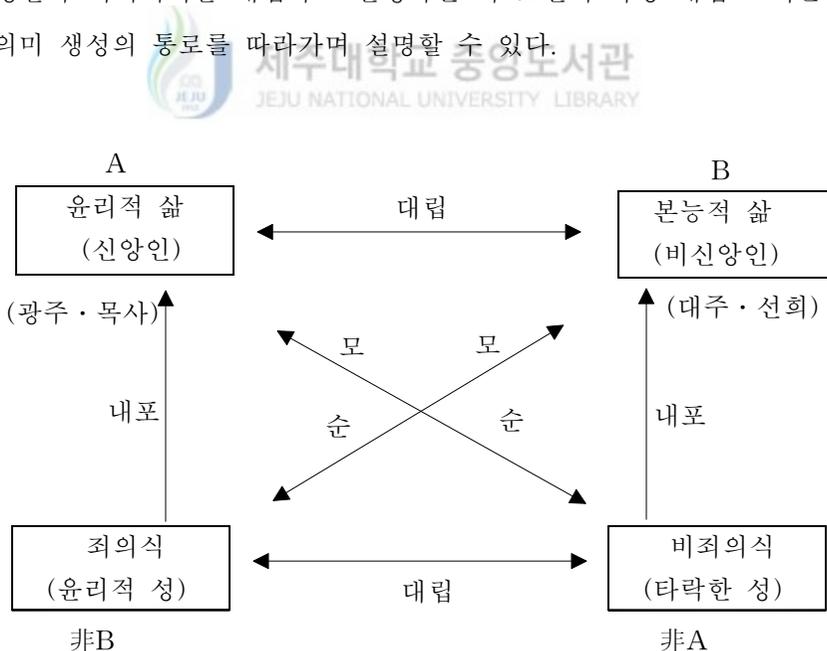
그러므로 광주는 ‘형식적 신앙인’과 모순관계에 있는 ‘자기 희생적인 삶’을 중개자로 하여 ‘진실한 신앙인’의 정체를 인식하고 ‘이기적 삶’이라는 모순을

극복하고 자기 희생적인 삶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길을 가게 된다.

2. 탈신앙적 타락형(대주·선희)

이 소설에서 비기독교적인 윤리적 타락자로 형상화된 비신앙인 대주는 광주의 동생으로서 속죄하기 위해 교회의 사찰이 된 형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또한 비신앙인 선희도 목사의 딸이지만 방탕한 생활로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비신앙인 ‘대주와 선희’의 욕망을 부정적 욕망자의 대립자로, 신앙인 ‘광주와 목사’를 대주와 선희와 갈등하는 긍정적 욕망의 주체자로 설정하고, 주체의 욕망 목표를 ‘윤리적 삶’으로 설정하면 이 소설은 정확한 이항대립의 욕망과 갈등 도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윤리적 죄의식을 주체의 중개자로, 타락한 성생활과 비죄의식을 대립자로 설정하면 이 소설의 욕망 대립 도식은 변증법적 의미 생성의 통로를 따라가며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 광주(목사)와 대주(선희)의 욕망갈등도

대주와 선회의 욕망 목표는 본능적인 삶(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일이며, 광주와 목사의 욕망 목표는 비신앙인 ‘대주와 선회’의 본능적인 삶을 윤리적 삶과 죄의식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비신앙인인 대주와 선회는 타락한 성적 관계와 비죄의식을 중개자로, 광주와 목사는 기독교적 윤리(죄의식)를 각기 중개자로 활용하여 그들의 욕망 목표에 도달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체의 욕망 목표인 ‘윤리적 삶’과 대립자의 중개자인 ‘비죄의식’, 대립자의 욕망 목표인 ‘본능적 삶’과 주체의 중개자인 ‘죄의식’은 각기 모순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주체의 욕망 목표(윤리적 삶)와 ‘기독교적 윤리(죄의식)’은 내포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종합적 해석을 끌어 낼 수 있다. 즉, 주체의 욕망 목표인 ‘윤리적 삶’과 모순관계에 놓여 있는 대립자의 ‘중개자인 비죄의식’은 ‘본능적 삶’을 지향하는 대립자의 욕망 목표의 달성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자의 욕망 목표는 주체의 ‘중개자’를 통해서 주체의 욕망 목표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서, 비신앙인 대주·선회와 대립관계에 있는 신앙인 광주·목사의 욕망 목표인 ‘윤리적 삶’ 욕구는 기독교적 윤리(죄의식)를 통해 기도되지만, 비신앙인인 대주와 선회는 타락한 성 관계를 통해서 본능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볼 때, 이 소설의 신앙인들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타락한 성의 모순을 지양하고(깨달아) 윤리적 삶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지만, 비신앙인인 대주와 선회는 탈신앙적 타락형의 욕망 추구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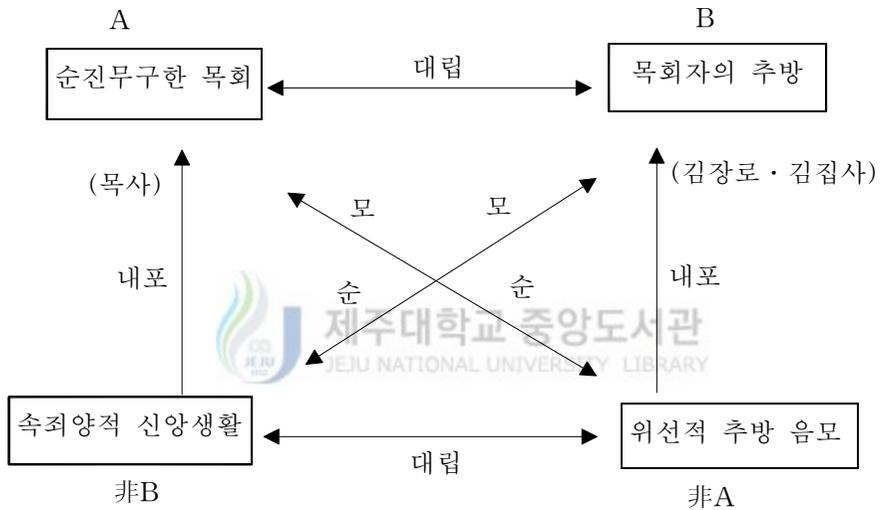
3. 순진무구한 속죄양형(목사·전도부인·정장로)

대
립

부인물 ‘목사’의 욕망을 긍정적 주체의 욕망자로, ‘김장로와 김집사’를 목사의

욕망과 갈등하는 부정적 욕망의 대립자로 설정하고, 주체의 욕망 목표를 ‘순진 무구한 목회’, 김장로와 김집사의 욕망 목표를 ‘목회자의 추방’으로 설정하면 목사와 김장로(김집사)의 갈등구조는 이항대립의 욕망과 갈등 도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속죄양적 신앙생활을 주체의 중개자로, 위선적 추방 음모를 대립자의 중개 기능으로 설정하면 이 갈등구조의 욕망 대립 도식은 변증법적 의미 생성의 통로를 따라가며 설명할 수 있다.



<그림 4> 목사와 김장로(김집사)의 욕망갈등도

이 갈등구조에 따르면 주체인 ‘목사’의 욕망 목표는 충실한 신앙생활을 따르는 순진무구한 삶이며, 대립자인 김장로와 김집사의 욕망 목표는 ‘목사’를 추방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다.

그리고 주체인 목사는 중개자인 철저한 속죄양적 신앙생활의 힘에 의해, 대립자인 김장로와 김집사는 위선적 추방 음모를 중개자로 활용하여 그들의 욕망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체의 욕망 목표인 ‘순진무구한 목회’와 대립자의 중개자인 ‘위선적 추방 음모’, 대립자의 욕망 목표인 ‘목회자의 추방’

과 주체의 욕망 실현을 돕는 중개자인 ‘속죄양적 신앙생활’은 각기 모순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주체의 욕망 목표와 ‘속죄양적 신앙생활’, 대립자의 욕망 목표와 ‘위선적 추방 음모’는 각기 내포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종합적 해석을 끌어 낼 수 있다. 즉, 주체의 욕망 목표인 ‘순진무구한 목회’와 모순관계에 놓여 있는 대립자의 ‘위선적 추방 음모’ (중개자)는 ‘목회자 추방’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자의 욕망 목표는 오히려 주체의 ‘속죄양적 신앙생활’을 (중개자로 하여) 죄의식을 자각하게 자극함으로써 주체의 욕망 목표인 ‘순진무구한 목회’의 꿈을 꾸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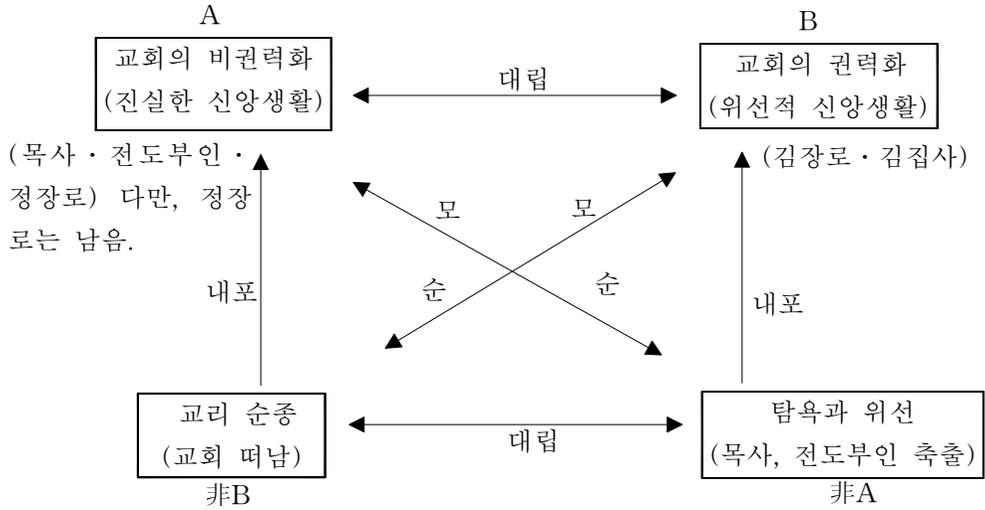
다시 말해서, 목사와 대립 관계에 있는 김장로와 김집사의 욕망 목표인 ‘목회자의 추방’ 욕구는 그들의 위선적 추방 음모를 통해 기도되지만, 주체는 ‘속죄양적 신앙생활’을 중개자로 삼아 대립자의 음모와 모순을 깨닫고 주체의 순진무구한 목회의 생활을 지향하려고 한다. 그러나 끝내 죄의식을 통해 교회를 떠남으로써 당대 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인들의 교회권력화 현상을 고발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4. 권력적 신앙인형(김장로 · 김집사)

교회에서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는 김장로(양복점)와 김집사(잡화상)는 자기 상점을 소유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교리에 대한 순종보다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강한 인물들로서 교회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목사 · 전도부인의 허점을 비판하고 빌미를 잡아 축출하고자 기도한다. 이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 · 전도부인 · 정장로는 가난한 무소유자들로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성실하고 진실한 신앙인들이다.

목사와 전도부인은 불륜으로 오인을 받고 김장로 · 김집사로부터 축출되지만, 정장로는 진실한 신앙인의 유형으로 남아 교회를 지킨다. 따라서 김장로 · 김집

사의 욕망 대립을 사각형으로 도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목사(전도부인·정장로)와 김장로(김집사)의 욕망갈등도

위선적 신앙생활을 하는 ‘김장로·김집사’를 대립자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전도부인·정장로’를 주체로 설정하면, 주체의 욕망 목표는 ‘교회의 비권력화’, 대립자의 욕망 목표를 ‘교회의 권력화’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탐욕과 위선(목사, 전도부인 축출)을 대립자의 중개자로, 교리 순종(교회 떠남)을 주체의 중개자로 설정하면, 이 도식은 변증법적 의미 생성의 체계를 형성한다.

‘김장로·김집사’의 욕망 목표는 교회의 권력을 잡는 일이며, 목사·전도부인·정장로의 욕망 목표는 위선적 신앙인인 ‘김장로·김집사’의 교회의 권력화를 반대하는 일이다. 그리고 김장로·김집사의 중개자인 탐욕과 위선의 힘에 대항하여, 목사·전도부인·정장로는 교리 순종을 중개자로 활용하여 그들의 욕망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체의 욕망 목표인 ‘교회의 비권력화’와 중개자인 ‘교리 순종’, 대립자의 욕망 목표인 ‘교회의 권력화’와 그들의 욕망 실현을 돕는 중개자인 ‘탐욕

과 위선'은 각기 모순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대립자의 욕망 목표(교회의 권력화)와 탐욕과 위선, 주체의 욕망 목표(교회의 비권력화)와 교리 순종은 각기 내포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해석을 끌어 낼 수 있다. 즉, 주체의 욕망 목표인 '교회의 비권력화'와 모순관계에 놓여 있는 대립자의 '탐욕과 위선(중개자)'은 '교회의 권력화'를 지향하는 대립자의 욕망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자의 욕망 목표는 주체의 '교리 순종'을 통해서(중개자) 주체의 욕망목표인 '교회의 비권력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목사·전도부인·정장로와 대립관계에 있는 김장로·김집사의 욕망 목표인 '교회 권력화'욕구는 탐욕과 위선을 통해 기도되지만, 주체는 '교리 순종'을 중개자로 삼아 대립자의 모순을 깨닫고 끝까지 주체의 교회의 비권력화를 욕망하지만, 끝내 교회를 떠남으로써 타락한 교회의 실상을 고발하고 폭로한다.

이렇게 볼 때, 이 소설은 타락한 당대 교회의 모순과 권력화 현상을 폭로·고발·증언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이 작품은 작중인물의 욕망의 방식에 따라 순종적 회개형(최광주), 탈신앙적 타락형(대주·선희), 순진무구한 속죄양형(목사·전도부인·정장로), 권력적 신앙인형(김장로·김집사) 등 네 가지로 유형화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욕망의 유형화 작업은 성경 속에서 인물의 유형적 모델을 찾아내기 위함이다. 다음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추출한 인물들의 욕망형들을 기독교의 죄의식과 십계명을 준거로 삼아 성격 유형과 인간상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작중인물들의 욕망 유형과 방법을 성격유형 분석의 틀로 삼아 유형화한 뒤, 구체적인 삶의 양상을 인간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IV. 인물의 성격유형과 인간상⁷²⁾

성경 속에는 수많은 신화적 인간형이 내재해 있다. 이러한 기독교적 인간형들은 기독교 문학 작품의 인간적 모델과 원형으로 형상화되거나 모방의 대상이 된다. 노드롭 프라이가 그의 「비평의 해부」에서 비극적 인물형(아담형, 그리스도형, 욱형 등)을 성경에서 찾고 있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IV장에서는 III장에서 분석 추출한 욱망 유형들을 성경 속의 인물 유형에 접근시켜 보고자 한다. 욱망의 추구유형과 그 방식은 인물의 성격유형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화 작업은 기독교적 인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단서가 되리라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인간상을 기독교적 죄의식이나 기독교 윤리인 십계명에 의거해서 추출하고자 한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가 제시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한 일(창 3:7), 악한 양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살인한 카인(창 2:9), 뿔사살왕의 하나님 모독 죄(단 5:6), 다윗의 간음죄(삼하 12:1~12), 예수를 판 유다의 배반죄(마 27:3), 예수를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괴로운 심정(마 14:66~72)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하타(חַטָּא)’로 그것은 ‘놓치거나 잘못된 길로 간다’는 뜻이며, 신약에서는 그리스어 ‘하마르티아(αμαρτια)’로 ‘표적을 빗나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⁷³⁾ 따라서 기독교에서 죄란 올바르게 정확히 겨누어야 할 하나님과의 정상적 관계에서 벗어나 빗나감으로써 인격적 신인관계에 금이 가고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권에서 벗어났음을

72) 이 논문에서 성격유형은 작중인물들이 소설 속에서 보여주는 성격적 특성을 분류한 것을 뜻한다. 또한 인간상이란 어떤 성격유형의 인물들이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삶의 양상과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지칭한다.

73) 얼 윌슨, 김창대 역(1995), 「죄의식(기독교상담 시리즈 9)」, 두란노, p.71.

의미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원죄로 유전된 이래 다양한 종류의 자(子) 범죄가 존재하게 되었다. 자(子) 범죄에는 교만, 질투, 증오, 감각적 육욕, 악한 욕망과 같은 내적 생활의 죄와 사기, 도적질, 살인, 간음 등과 같은 외적 생활의 죄를 총칭한다.⁷⁴⁾ 기독교 윤리관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기독교적 윤리⁷⁵⁾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기본 윤리는 십계명⁷⁶⁾을 통하여 명시되어 있다. 즉 하

74) 권영복(1991), 「성경 주제별 연구」, 가나안말씀사, p.93.

75) 첫째는 인간적 윤리가 아닌 신적 윤리로서 절대적, 객관적, 타율적, 초자연적 윤리다. 즉 성경적 계시의 윤리이다. 둘째는 십자가 구속의 윤리이다. 구원 받은 기독교인들에게 구원과 교리에 겸손으로 성도들의 윤리 생활에 나타나야 한다. 셋째는 성령 감화의 내심적 윤리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선행보다는 심령 속의 내적인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내적 감화 없이 나타나는 외적 행동은 외식(外飾)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 결과는 위선이다. 넷째는 예수님의 모범 된 윤리이므로 곧 실천 준행의 윤리이다. 다섯째는 종말적 면류관 윤리이다. 죽음 저편에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천국의 윤리이며, 그곳에서 상급을 받는 면류관의 윤리이다. 여섯째는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주의 윤리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진실한 사랑만이 모든 선행의 유일한 동기가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수만(1998), 「기독교윤리」, 한글, pp.21~23.

76) 제1계명 :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출 20:3)

제2계명 :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 네 부모를 공경하라.(그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나눔에 대한 범죄와 인간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린 윤리적 계명이라 할 수 있다. 십계명은 크게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뉜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예방적 관점에서 죄와 악을 피하며,⁷⁷⁾ 모든 선한 일에 힘써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죄의식은 객관적인 죄와 주관적인 죄의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⁷⁸⁾ 객관적인 죄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법적인 죄로 국가의 법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범법자가 잡히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더라도 법 앞에서는 죄가 있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인 죄로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규칙을 어겼을 때 생긴다. 즉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악의 있는 잡담을 하고, 몰인정한 비판을 가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 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기대를 어긴 것이 된다. 셋째, 개인적인 죄로 개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표준을 어기거나 또는 양심의 가책에 저항한다. 예를 들어 어느 아버지가 매주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는데, 사업 때문에 주말에 집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죄의식을 느낀다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이 명시한 표준으로서 인간이 행동이나 생각을 통해 이런 표준을 어길 때, 그들이 느끼건 말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된다.⁷⁹⁾

일반적으로 인간은 죄를 범하고 나면 크든 작든 죄의식을 경험하게 된다. 죄의식은 죄의 유·무나 범죄의 경중보다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생성된다고

제10계명 :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출 20:1~17)

77) “베드로후서”, 1: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시편”, 119:11.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78) 게리 콜린스(1984), 전계서, p.169.

79) 상계서, pp.167~168.

할 수 있다.

나래모어(Narramore)는 이런 주관적인 감정들을 처벌에 대한 두려움, 자존감의 상실, 외로움·거부·고립 등 세 가지 범주의 감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죄의식은 후회, 자학 그리고 죄에 대한 공포감 등이 혼합된 것임을 말한다.⁸⁰⁾

박영준 「종각」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과 교회의 일반적인 치부까지 함께 고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작중인물의 인간형을 성경 속에서 죄의식을 수용하고 인식하는 인물들의 특성과 유형을 찾아 그와 상징적 유사성을 지닌 작중인물들을 유형화 해보기로 한다. 즉, 다윗형(최광주), 이세벨형(대주·선희), 그리스도형(목사·전도부인·정장로), 바리새인과 발람의 혼합형(김장로·김집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유형화는 「종각」이 기독교 소설로써 그 모델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가설과 함께 일반적으로, 현대소설의 인간적 모델이 성경의 인물들 속에 보편적으로(원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1. 다윗형(최광주)

바울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8~10에서 ‘구원을 이르게 하는 회개의 근심’을 기뻐했다. 이를 나래모어는 건설적인 근심이라고 말한다.⁸¹⁾

간음죄로 인한 고통과 참회의 원형은 「구약성경」의 “사무엘 하”, 11장 다윗 이야기에 나타나 있다.⁸²⁾

80) 정은수(1985), “죄의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11.

81) 즉, 일차적인 초점이 되는 대상이 하나님이나 타인이며 남에게 입힌 손상이나 장래의 올바른 행동이기 때문에 남을 돕거나 자신의 성장을 증진시키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근심이다.

82) 염명수(1989), 「성서인물연구」, 한국문서선교회, p.156. 여기서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손이며 ‘이세’의 여덟째 아들로, 그 이름은 히브리말로 ‘사랑 받는 자’라는 뜻이다. 그는 이름 그대로 사랑 받는 자였다.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일개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식되어 있다.

초여름 암문과의 전쟁은 시작되었고 승리는 이미 다윗에게 있었기에 요압에게 전군을 지휘하게 한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평안히 낮잠을 자고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나 궁전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았다. 그녀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지만 주저하지 않고 불러들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통정을 행한다.

또한 다윗은 밧세바가 잉태를 하자 전장에 나가 있던 자신의 신복인 남편 우리아를 불러와, 아내와 동침할 것을 바라며 자신의 범죄를 가리려고 했으나, 우리아는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하며 왕의 부하들과 같이 궁전의 뜰에서 잔다. 이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거둬 집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나 우리아는 왕에게 충정을 보이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결국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에게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명령서를 들려 다시 전장으로 보낸다. 명령서의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선두에 서게 하여 죽게 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윗의 비겁함과 치밀한 계획, 잔인한 면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아의 장례 후 다윗은 밧세바를 당당하게 아내로 삼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다윗은 곧바로 왕의 권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한다. 참 회개로 이르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윗의 죄의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의식의 불편한 감정들을 막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사용하기보다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첸치니에 따르면, 참되고 건설적인 죄책감은 종교적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하는 죄의식이라 하였다.

또한 다윗은 간음으로 낳은 아이가 앓자, 금식하며 기도하였지만 이레만에 죽게 된다.⁸³⁾ 결국 경건하던 다윗은 한꺼번에 간음죄와 모살죄를 지었고, 쉽게

83) “시편”, 51: 7~9.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들

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등 네 가지의 계명을 어기게 된다.⁸⁴⁾

이 소설 중심인물인 최광주의 죄도 이러한 다윗형의 모습을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광주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육체의 쾌락을 위해 주색잡기로 탕진하였다. 그는 열 다섯 명의 여인과 불륜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처제까지 범하자 그 충격으로 부인은 딸 경선을 낳고 자살하고 만다.

신애가 죽은 뒤부터 계속해 온 죄의식 속의 괴로움으로 광주는 한강에 나가 몸을 던진 일이 있었다. 그때 그는 죽은 것으로만 알았었다. 그러나 얼마 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자기를 발견했을 때 그는 하느님이 일부러 목숨을 끊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죽으면 끝이다. 그 뒤에는 지옥이 있을 뿐이다. 괴로움 속에서 생명을 연장하며 완전한 속죄를 함으로 천당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려는 뜻이다. 그래서 낚시질하던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목숨을 건지게 한 것이다.

그때 죽었다면 그는 자기의 죄 값으로 지옥에 가는 벌을 받는 것이 된다.⁸⁵⁾



광주는 처제와의 관계로 인해 아내가 자살하자 간음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된다. 후회와 양심의 가책은 자기가 아내를 죽였다는 죄의식에 휩싸이게 하였고, 그 괴로움으로 광주는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한다.

그후 광주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에 입문한다. 즉 죄의 대한 인식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으며, 구원을 위한 회개의 근심을 낳아 종교적인 죄의식으로 변화됨을 볼 수 있다.

거위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다윗이 회개한 내용의 일부이다.

84) 이러한 죄로 인해, 다윗의 불의의 아들은 죽고, 큰 아들 암논은 누이를 범하여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한다(삼하 13장).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여 아버지의 처첩들과 간음을 행하여 다윗 왕은 울면서 맨발로 왕국을 도망쳐 나와야 했다. 이처럼 다윗의 집에서 성폭행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결국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

85) 「종각」, 전계서, p.68.

현재 광주는 심삼애의 남편으로서, 양복점을 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미혼의 동생 대주와 전처 소생의 딸, 처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명의 아들 등 여섯 식구의 가장이다. 그의 처 심삼애는 지금 반신 불수의 몸으로 삼 년째 누워만 있는 불구자이다. 또한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군고구마 장사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며 궁색하고 비참한 가정 생활에서도 광주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자신의 속죄로 생각하며, 언제나 자신의 모든 삶을 신앙의 거울에 비춰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건한 삶과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여기서 광주의 죄의식은 간음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은 다윗의 죄의식과 유사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광주의 삶은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이들에게 희생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다. 대주가 방탕한 생활을 할 때도 화를 내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김장로와 김집사가 목사와 전도부인 사이를 부도덕한 관계로 몰아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려 할 때도 믿지 않고 목사를 위해 증언한다. 또한 고아원에서 나온 거지 아이를 아들로 삼기 위해 집으로 데려오는 것 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광주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죄의식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윗과 유사한 종교적인 죄의식의 소유자로 분류할 수 있다.

2. 이세벨형(대주 · 선희)

광주의 죄의식을 종교적 차원의 죄의식이라 한다면, 대주와 선희의 행동 속에서는 거의 죄의식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죄의식의 부재자라고 할 수 있다.

바이비(Bybee)와 그의 동료들은 죄의식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으로 화해적

반응, 자기 비난, 합리화, 회피, 발각과 처벌에 관련된 반응, 쾌락적 반응, 무반응 등 다양한 반응들로 나누고 있다.⁸⁶⁾

이 기준으로 볼 때 대주와 설희는 쾌락적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거나 오히려 즐기려는 반응을 보인다. 이처럼 죄의식이 거의 없는 경우나 내면적인 공격성을 분출시키려는 등 반사회적 행동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쾌락적 반응을 일삼는다는 점에서 대주와 설희의 행동은 상통한다고 보아진다.

성경에도 여러 유형의 악녀가 등장한다. 소설 「살로메」에서 유명한 왕비 헤로디아는 연회장에서의 여흥과 어머니의 간청으로 인해 의인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으며, 구약성경에 나오는 악한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그의 딸 아달리야 모녀는 잔악한 권력자 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자는 성경 속 인물 이세벨⁸⁷⁾과 대주와 설희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그들의 죄와 죄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세벨은 바알신앙⁸⁸⁾을 강요하여 사회의 윤리를 무시하고 음탕과 타락을 부추겼음을 알 수 있다. 이 바알신앙에 대하여 스즈끼 사찌코가 쓴 「구약성서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86) 김문주(1998), “죄(의식)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신학과 사상」, 26, 카톨릭대학교, p.99.

87) 「구약성경」, “열왕기상“, 16 : 28~34. 여기서 이세벨은 어원적으로 ‘고상하다’는 뜻이며, 시돈왕 옛바알의 딸로 이스라엘 일곱 번째 아합왕의 아내이다. 옛바알은 시돈왕이면서 아스다롯의 이방 제사장을 겸한 사람이므로 이세벨은 바알종교의 대표적인 가문에서 자랐다. 이세벨은 열렬한 바알 숭배자로 아합왕과 북조 이스라엘 국민에게도 강요하여 사마리아에 바알 사당을 짓고 단을 쌓게 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무차별 살해했고 하나님의 신앙을 짓밟았다.

88) <신성서대사전>에 의하면, 바알은 비옥(肥沃)의 신이며 소유자를 의미한다. 바알은 식물의 생장을 관장하는 신으로 섬기고, 풍작을 약속하는 신이다. 그 신앙의 실패는 농물의 풍작을 바알과 그 배우신인 아스다롯과의 성교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점이 문제이다. 비와 식물은 바알의 지배하에 있다고 믿었으며, 그 비가 흠과 쉬일 때에 신비한 비옥의 업이 이루어져 바알을 대표하는 남자와 배우신을 대표하는 여자와의 성교가 신전에서 의식에 들어 있다.

「이 신앙이 강조하는 것은 도덕이나 선이 아니라 풍요와 섹스였습니다. 따라서 육욕의 승배가 신에의 신앙으로 간주되고, 신전 창부 및 남창은 종교에 속하는 신성한 계급으로 간주하고, 그 매음 수입은 신에의 헌금으로서 신전의 금고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⁸⁹⁾

또한 이 예화⁹⁰⁾에서는 이세벨의 잔인하고 교활한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이스라엘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율법에 따르면, 땅은 유업으로 영원히 지켜야할 대상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궁전에 인접해 있으므로 나봇에게 흥정하였지만, 나봇은 아합에게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아합은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어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하지 않는다. 두려운 것이 없는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한 사람의 증인의 말만으로는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기에 날조한 두 사람의 사악한 자를 재판장에 증인으로 내세워 나봇을 죽게 만든다.

이처럼 이세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와 윤리를 짓밟아 사회적 규칙을 어겼으며, 간교한 농간으로 무고한 사람을 살인한 법적인 죄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긴 신학적인 죄를 짓게 된다. 또한 이세벨은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와 죄의식을 갖지 않았으며 더 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잔악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주의 행동을 통해서 성경의 이세벨과의 유사성을 확인해 보기로 하

89) 삼포롱자(三浦綾子)(1986), 「성서에서 본 인간의 죄 - 어둠 속에 빛을 찾아서」, 최현 역, 삼민사, p.105.

90) 「구약성경」, “열왕기상”, 21 : 7~15.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면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중략)-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나봇은 이 일에 동참한 중신들과 동등한 신분이지만 이세벨의 강력한 절대 전체 때문에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았다.

자.

오늘밤으로 만날 수 있다면 오늘밤으로 여관엘 같이 간다. 오늘밤에 만날 수가 없다면 내일 만날 것이라도 약속을 해 두어야 한다. 더구나 지난번에는 자기가 돈을 썼으니 이번에는 대희가 돈을 쓸 차례다.

- (중략) -

동시에 딱딱딱한 대희의 체온이 피부에 느껴졌다. 찰찰 몸에 감기는 그미의 테크닉. 대주는 달려가 대희를 붙잡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쾌락의 평등을 주장할 것이 아니다. 나만의 쾌락을 생각하면 되지 않는가? 대희야 어쨌든 내가 대희에게서 느끼는 쾌락은 나만의 것이다. 돈으로 산다고 해도 무방하다. 몸을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 고마움을 느끼자.(아무리 호텔이라도 해도 돈 천 원만 있으면 되겠지. 돈 천 원쯤이야)⁹¹⁾

윤대희는 K 공업사의 사무원이다. 대주가 나이 삼십이 되어 처음으로 양복을 외상에다 실비로 맞추어 입었을 때 만난 여자이다. 쾌락의 평등을 내세워 경비를 번갈아 내면서 유희로써 성을 서로 즐기는 사이이다. 즉 이들의 관계는 사랑을 전제로 한 합법적인 성 관계가 아니므로 일시적이고 즉흥적이며 속물적인 본능에 이끌리는 비윤리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형인 광주의 소개로 김장로의 양복점에서 근무하면서 대희에게는 대학을 졸업하고 양복점을 공동 경영한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위 내용은 대희가 성적 쾌락의 경비를 평등하게 내야 할 차례에 못 내겠다고 하자, 대주는 배신감과 육체적 쾌락의 아쉬움과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처럼 대주의 본능적이고 비윤리적인 속물근성은 쾌락의 탐닉을 놓치기 싫어 결국 경비를 본인이 마련하게 된다.

대주는 데이트 비용인 거금 천 오백 원을 겨울 김장과 신탄을 사기 위해 모아둔 광주에게서 빌려간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쓰고 돌아와서는 술도 마시고 외도도 하라고 술 주정을 한다. 이러한 대주의 행동은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기

91) 「종각」, 전계서, pp.117~130.

위해 불쌍한 형의 형편을 알면서도 거금을 한순간에 써 버림으로써 타락한 반윤리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대주는 대회와 계속 사귀지 못하고 헤어지고 만다.

다음은 대주의 두 번째 성적 파트너인 선희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죄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자기가 교회에 화제를 만들고 있는 여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다는데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부끄럼을 느끼지 않는다.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표를 내고 교회 간부가 자기 이야기를 화제에 올려놨다는 것이 불쾌할 뿐이었다. 경멸이 뒤섞인 불쾌지만 잘난 척하고 남과 싸울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⁹²⁾

선희는 대학교 삼학년생으로 학교에도 잘 가지 않고 남자 교제가 많아 평소 목사 부부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 그런 선희가 여관서 남자와 자다가 임검에 붙들려 오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김장로와 김집사는 교회에 누를 끼쳤으므로 목사의 사표를 요구한다. 딸의 잘못을 인정한 목사는 사표를 냈지만 정장로의 중재로 일시적인 화해를 하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인 선희는 오히려 자기 행동에 대하여 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자기 일을 간섭하고 화제로 올려놨다는 사실에 불쾌해 한다. 이는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마치 성 개방 사회의 선구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말하자면 죄의식이 없는 상대주의적 도덕관에 사로잡힌 인물형이라 할 수 있다.

웃기지 마세요. 하느님이 죽기 이전에 마귀두 죽었어요. 마귀가 어디 있구 또 누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까. 모두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사람두 하느님을 믿지 않아요. 따분한 이야기 그만 두시구 어서 돌아가세요. 선희와 내가 어떤 짓을 했다 해두 교회에 파문이 일어날 까답두 없구요.

-(중략)-

92) 상계서, p.230.

하느님은 형님 혼자서나 가지세요. 내게는 하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울 것두 없어요. 사람두 그래요. 나같은 것한테 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피해를 입으라지요. 그런 인간을 나는 무시하니까요.⁹³⁾

위 내용은 대주와 광주와의 대화에서 대주가 말한 부분이다. 대주와 선희는 집에서 한 번 만난 적 있다. 그런데 취직을 부탁하기 위해 선희가 갑자기 대주가 일하는 양복점으로 찾아와 만남이 시작된다. 이것은 선희의 개방적이며 적극적인 성격의 일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은 인생관과 종교관이 같은 것을 확인하고는 서로에게 육적인 호감을 느낀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에서 외박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목사부인은 울며 광주를 찾아오고, 목사는 교회를 그만 두기로 결심한다.

이에 광주는 목사와 교회에 큰 누를 끼친 대주를 양복점 앞에서 기다린다. 그러나 당당하게 양복점으로 걸어 들어가며 손을 드는 대주의 행동 속에서는 죄의식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광주는 대주와 선희가 함께 외박한 일은 죄라며 회개를 권한다. 그러자 대주는 마귀도 하나님도 부정하며 제멋대로 살겠다고 말한다. 또한 선희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뉘라든 내가 상관할 게 뭐예요”라며 말한다. 이처럼 이 둘은 자기 중심적이며 탈 윤리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주와 선희는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기대를 어기고 있지만,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인물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주의 방탕함과 선희의 자유분방한 성격은 윤리나 체면의식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신앙에 구속받지 않는 방종한 생활로써 사회적인 죄와 법적인 죄를 모두 범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 간음죄, 거짓말한 죄, 도둑질한 죄 등 율법을 범하는 신학적인 죄와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성경 속 인물인 이세벨이 바알신앙의 음탕함을 전하여 사회를 타락시키고, 거짓말로 살인을 범한 죄와 유형적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타인에게 큰 아픔을 주고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더욱 무시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

93) 상계서, pp.278~279.

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광주와 목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혼란과 유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반사회적(antisocial) 인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후회와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대주·선희와 이세벨의 경우는 죄의식의 부재자로서 비중교적 죄의식의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그리스도형(목사·전도부인·정장로)

많은 비그리스도인이나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조차도 누구나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 “로마서” 7:19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약한 모습에 대해서 고뇌에 찬 고백을 하게 된다.⁹⁴⁾

일반적으로 죄의식 이전에 책임의식이 전제된다. 따라서 자녀의 죄로 인한 죄의식은 자기 자녀에 대한 책임을 그 부모가 지고 있다는 책임의식 속에서 성립될 수 있다. 같은 논리로 소설 속에서 선희의 아버지인 목사의 죄의식도 책임의식에서 비롯됨을 볼 수 있다. 즉, 목사는 선희의 방탕한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자 한다. 이것은 딸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속죄양 의식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철저한 신앙적인 삶과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생활하는 전도부인과 정장로도 같은 인물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노드롭 프라이도 비극의 전형적인 주인공들은 운명의 수레바퀴의 정점에 있으며, 그러기에 지상의 인간과 천상의 위대한 존재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주장한다.⁹⁵⁾ 그리고 비극적 인간유형을 성경 속에서 아담형, 그리스도형, 욕형 등 세 형을 찾았고, 그 외에 인간성과 신성을 조화시킨 프로메테우스형을 제시하

94) 「신약성경」, “로마서“, 7 : 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 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95) 노드롭 프라이(1982), 「비평의 해부」, 임철규 역, 한길사, p.289.

었다.⁹⁶⁾

따라서 속죄양의 죄의식을 가진 진실한 신앙인인 목사, 전도부인, 정장로의 세 인물은 너무나 인간적이면서도 또한 순수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사회들로부터 배척받은 유형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 여호와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 힘도 없는 이 죄인이 하느님의 힘으로 우매한 백성들을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해 왔사오나 제게 주신 힘이 진하여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옵니다.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낼까 하오니 어디서나 하느님이 보호하시어 다시는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인간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와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을 욕되게 하기 쉬운 인간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느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⁹⁷⁾

목사는 책임감이 강하며 이성적인 인물로서 화가 날지라도 인내와 용서로 극복하는 인물형이다. 이처럼 강한 책임감과 기독교적 윤리관은 딸이 지은 죄를 자기 죄처럼 느껴 그 괴로움을 죄의식으로 수용하는 인물이다.

목회자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이다. 그런데 딸 선희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여관서 남자와 자다가 임검에 붙들려와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기는커녕, 난처하게 만든다. 또 다시 대주와 선희는 외박을 감행한다. 이는 목사로서 하여금 목회자로서의 자책감과 죄의식을 통감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에 목사는 자식에게 올바르게 교육하지 못한 책임의식으로 목사직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따라서 목사의 이런 행동은 하느님

96) 상계서, p.63. ①아담형은 죽어야 할 운명으로 결정지어진 인간상. ②그리스도형은 너무나 인간적이면서 완전무결하게 순수했기 때문에 인간 사회로부터 추방당한 존재. ③용형은 스스로를 신의 제물로 정당화시킴으로써 프로메테우스적인 인물로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한 존재. ④프로메테우스형. 이상과 같이 작중인물 유형을 네 가지 원형으로 프라이는 나누었다.

97) 「종각」, 전계서, p.285.

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자신을 깨닫고, 죄의식을 감당할 수 없어 하느님의 완전하신 긍휼함을 간절히 갈망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목사는 전도부인과의 관계를 오인 받아 김장로와 김집사로부터 멸시를 받고 먹살을 붙잡히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목사는 너무나 인간적이면서 순수했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에서 타락한 자들에게 추방되는 그리스도형이라 할 수 있다.

전도부인은 사십이 조금 넘은 여자다.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아래지만 목사를 도와 신도들의 신앙을 두텁게 해주는 하느님의 목자다. 비록 한 번 결혼했었다고 하지만 애도 없이 혼자를 깨끗이 지키고 있다. 조금도 잡스러운 것을 느끼게 하지 않는 여자다.⁹⁸⁾

이 소설에서 전도부인은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다. 하느님의 목자로서 목사를 도와 신도들의 신앙을 두텁게 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도부인은 김장로와 김집사로부터 목사와 부정한 관계로 오해받고 있음을 알고 목사님을 위해 자기가 먼저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들은 뒤 전도부인은 어이가 없었지만 목사님을 위해 자기가 먼저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까지 했었다. 목사님 덕에 드나드는 것부터 삼가야겠다는 마음에서 선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직접 찾아가지를 못하고 광주를 시켜 불러오게 했던 것이다.⁹⁹⁾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 것은 몸에 붙어 있는 습성화된 신앙생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도부인은 목사님 덕에 드나드는 것을 삼가 하여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광주를 시켜 선희를 불러온 전도부인은 선희에게 하느님을 믿어 죄를 깨닫

98) 상계서, p.12.

99) 상계서, p.227.

고 방탕한 길에서 빠져 나오라고 권면 한다. 하지만 선회는 조금도 반성하지도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 이렇게 조심하지만 전도부인은 이 일을 계기로 오히려 더 의심받게 되어 김장로 부인한테까지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전도부인의 행동은 성경 “시편”에서 “복 있는 자란 율법(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한 하느님의 계율을 실천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¹⁰⁰⁾

이 대목에서 ‘주야’의 ‘주’는 일이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서 더욱 조심하고 정비해 나가는 생활을 뜻하며, ‘야’는 일이 안될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말씀에 비추어 보는 반성하고 깨닫는 생활을 의미한다. 이처럼 전도부인의 죄의식은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여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도부인의 방안에 있는 장식품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골고다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 드리는 예수의 그림과 하느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목사의 가족사진”이 전부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도부인의 청렴결백한 신앙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전도부인은 목사를 도와 신도들의 신앙을 두텁게 하는 자로서 진실한 기독교인이며, 목사의 가족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긍정적인 인물유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부인이 김장로·김집사로부터 목사와의 부정한 관계로 오해받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순수하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에서 추방되는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장로의 생활 또한 기독교인의 모범이 된다. 정장로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베드로전서”의 명령에 따라 선한 청지기 상으로 살아가는 인물이다.¹⁰¹⁾

100) 「구약성경」, “시편”, 1 : 1~6.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의 길은 망하리로다.

옛세 동안 허름한 옷을 입고 돈벌이를 한다. 그러나 일요일이면 단 한 벌밖에 없는 두루마기를 입고 교회당에 나온다. 정말 광목 흰 두루마기는 그가 일 년 내내 입는 단 벌 옷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요일마다 부인에게 꽃을 들리우고 교회에 나온다. 교회에 나와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연보를 한다.

두루마기를 입고 한 손에 성경과 찬송을 든 정장로를 보면 광주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지금 사택을 나오고 있는 정장로에게서도 광주는 어떤 믿음성을 느꼈다.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힘이 없다. 말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정장로의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지난 번 목사를 내 쫓을 때도 정장로는 그것을 반대했지만 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뜻은 정당한 것이다. 광주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정장로의 힘이 약하다고 해도 광주는 그를 믿는다. 힘이 약한 것은 믿음이 약한 때문이 아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남을 누르려하지 않고 하느님의 판단이 내리실 때를 기다리기 때문이다.¹⁰²⁾

정장로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실천적인 인물이다. 기독교에서 청지기의 원리란 자기보다는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는 부지런한 신앙인으로서 자만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재물에 의지하지 않으며, 잃어도 불평하지도 남용하지도 않아 독점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그는 기독교 윤리의 기본인 ‘십계명’의 제4계명을 온전히 지켜 “옛세 동안 허름한 옷을 입고 돈벌이를 하고 단벌 신사로 일요일마다 부인에게 꽃을 들리우고 나온다.” 이것은 정성과 성실한 삶의 자세로 물질을 선용하며 선한 청지기적 삶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장로가 교회에서 힘이 약한 것은 자기 판단으로 남을 누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이 내릴 때를 기

101)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 : 7~11.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102) 「종각」, 전계서, p.161.

다리기 때문이다.¹⁰³⁾ 따라서 지난 번 목사를 내쫓으려 할 때도 정장로는 반대했지만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이번 목사의 추방에 대한 반대에도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장로는 충성된 청지기의 바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타락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형의 인물형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처럼 그리스도형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너무나 인간적이기에 타락한 교회 세력들에 의해 추방당하는 공통성을 보여준다. 목사는 충실한 목회자로서 생활하였지만 결국 딸을 잘못 가르친 책임의식과 김장로와 김집사의 책략에 의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전도부인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김장로와 김집사의 오해로 인해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정장로는 선한 청지기처럼 진실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지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김장로와 김집사의 타락한 세력에 밀려 교회생활의 책임 있는 결정들로부터 소외된다.

하지만 그들은 타인을 원망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며, 또한 남의 잘못도 스스로 짊어지려는 속죄양 의식을 갖는 전형적인 그리스도형의 모습을 보여준다.

4. 바리새인과 발람의 혼합형(김장로 · 김집사)

오스월드 챔버스에 따르면, 양심은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타고난 생득적인 기관으로서 그 사람이 아는 가장 고상한 가치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기능을 감당하기도 한다.¹⁰⁴⁾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가장 고상한 가치는 하나님이며, 비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가장 고상한 가치는 자신들의 원리라

103) “시편”, 19 : 14.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 되기를 원하나이다.”

104) 오스월드 챔버스(1994), 『죄의 철학(오스월드 챔버스 시리즈3)』, 정광욱 역, 두란노, p.99.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장로와 김집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빛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원리를 앞세우는 인간형들이다.

교묘한 위선자로 양심의 고통을 덜기 위해 자신을 속이며 종교적 가면을 쓴 김장로와 김집사는 억압된 죄의식을 지닌 인물로 규정할 수 있다. 억압된 죄의식의 소유자들은 자신의 죄의식을 의식적으로 싫어하여 무의식 속으로 억압시켜 죄의식을 야기시켰던 사건을 잊게 됨으로써 그들은 타인을 계속 비난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¹⁰⁵⁾

먼저 김장로와 김집사가 범한 죄의 기준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며 그들의 행동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보통 성경은 ‘죄(guilt)’ 또는 ‘죄를 지은(guilty)’으로 번역되는 말을 신학적인 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를 죄를 지은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일반적인 죄(guilt)와 종교상의 죄(sin)사이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¹⁰⁶⁾ 여기에서 죄(sin)란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위 또는 국가나 사회 집단에서 정해 놓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죄의식(guilt)은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갖게 되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속과 겉이 다른 위선적인 인간상으로는 바리새인이 있고, 물질적 탐욕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으로는 발람 선지자가 있다. 성서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분쟁하는 무리들로서(행 23:7), 자신을 의롭다고 자랑하며 돈을 좋아하는 자들로서(눅 16:14), 내심이 사악하고(마 5:20), 교만하여 예수와 그 제자들을 질문으로 시험하며 미워하고 중상, 박해하기를 일삼는 외식하는 교사¹⁰⁷⁾라고 묘사되어 있다.

105) 최재락(1996), “죄의식 -인격적 억압과 갱생의 스펙트럼-”, 『기독교사상』 452, p.231.

106) 게리 콜린스(1984), 전계서, p.169.

107) “사도행전”, 23 : 7.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누가복음”, 16:14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마태복음”, 5: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8:1

산상설교¹⁰⁸⁾에서 예수는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관과 생활 방식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¹⁰⁹⁾ 기도하는 척했지 아무 것도 구하지 않는 잘못된 기도를 하였고, 자신의 의(義)와 사랑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인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볼 때 김장로와 김집사가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고, 내쫓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헐뜯으며 딸의 잘못을 아버지의 책임으로 돌려 목사를 정죄하는 모습은 바리새인¹¹⁰⁾과 다른 바 없다. 그리고 아무리 교회의 계율을 지켜 봉사와 충성으로 잘 감당할지라도 사랑과 겸손으로 행치 않은 모든 행위는 의로운 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바리새인처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의(義)로 위선적인 모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발람은 히브리말로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잡신의 예언자이다.¹¹¹⁾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과 모압 국경 요단 맞은 편에 진을 치자 발람과 미디안 장로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발람을 선택하였다. 이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1~12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討索),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08) 「신약성서」, “마태복음”, 7 : 1~5. (마 9:11~13, 21:45, 23: 5~12, 눅 16:15, 18:11, 14 참조.) :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109) 「신약성서」, “누가복음”, 18 : 10~14.

110) ‘바리새인’의 성격유형에 관한 질책은 “이사야”와 “요한일서”에서 언급된다. “그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이사야 64:6)고 하였다. 인간의 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의로울 뿐이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바리새인은 부패한 마음을 가진 불쌍한 죄인이다. 하물며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그 마음에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요한일서 3:15).

111) 발람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는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부들지방 사람으로서 브올의 아들이요 술사였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

고 금지하였지만 재차 더 많은 예물과 예우를 약속하자 발람이 마음을 바꿔 모압의 사신을 따라 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발람은 발락이 제공한 물질에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키는 범죄에 빠지게 한 이중인격의 선지자로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존귀한 신분에서 물질의 탐욕으로 인하여 무참히 죽음을 당한다. 소설 속에 나타난 김장로와 김집사는 바리새인과 발람처럼 위선적이고 물질 탐욕을 보이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지켜야 한다. 그런데 김장로와 김집사는 교회의 제직으로서 겉으로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진실한 신앙인처럼 행세하지만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킨다. 다음 인용문은 김장로의 행동 특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양복점 주인인 김장로 같은 사람을 보라. 신을 믿고 있다. 그러면서도 신을 위해 살지는 않는다. 신을 위한 희생을 안 하면서도 신자라는 자위 속에 살고 있다. 십 원의 월급을 주고 이십 원, 삼십 원의 이익을 착취한다. 착취한 돈은 자기 혼자서 살찌는 데만 소비한다. 자기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며 종일 상점에 나오지 않는다. 성경에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고사하고 여행도 다니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함이다. 자기는 계명을 지키면서도 부하는 계명을 범하게 하는 것이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그리고 연보를 적지 않게 한다고 해서 장로직에 까지 앉아 있다. 신을 이용하며 자기 만족을 느끼는 현명한 사람이다. 신을 믿되 신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도 신은 노하지를 앎으니, 그 신은 무골충이란 말인가?¹¹²⁾

김장로는 하느님 앞에 진실로 헌신하기 위한 고뇌나 양심의 고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또한 위선적으로 지키고 있다. 십계명 그대로가 아닌 자기 중심적인 방법으로 양복점 전 직원들은 일을 하게 하고, 자기 혼자만 안식일을 지키는 식으로 위선

112) 「종각」, 전계서, p.121.

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자기 중심적인 삶과 물질만을 추구하면서도 위선적인 인물형임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김집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꽤 큰 가게이기 때문에 수입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는 한 주일에 백원 이상 연보를 안한다. 진실한 교인이면 으레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도 그는 백분의 일도 연보를 안한다. 그러면서 어찌 자기가 진실한 교인이라 할 수 있으며 또 남을 정죄하려 하는 것일까? 지난번 목사를 내보낼 때 갈 곳 없는 목사가 나가려 하지 않았다. 김집사가 주동이 되어 제직회(諸職會)에서까지 내보내기로 결정했는데도 목사는 갈만한 교회를 정해 놓지 않고 어떻게 나가기부터 하느냐 하며 그 뒤에도 주일마다 설교단에 올라가 설교를 했다. 그때 김집사는 설교단으로 올라가 설교하려는 목사의 넥타이를 잡아 끌어내렸다. 부인들은 하느님의 전당에서 추한 싸움이 일어났다고 통곡들을 했지만 김집사는 끝내 목사를 교회당 밖으로 끌어내고야 말았다.¹¹³⁾

김집사는 잡화상 주인이자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진실한 교인’이다. 그는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 젊은 사람들이 목사를 좋아하지 않고 신자 수는 줄어들어 교회를 후퇴시킨다는 명분으로 설교하려는 목사의 넥타이를 잡아 쫓아 낸 장본인이다. 교회의 형식적 계율만 알고 자만심에 차 있어 사랑과 겸손이 전혀 없는 잔인한 인물이다. 또한 가게에 물건 사러 오는 손님들에게 집사의 교직까지 내세우며 거짓말로 본전을 속여가며 남보다 비싼 값으로 장사를 한다. 이처럼 겉으로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행세하면서 십일조는 커녕 백분의 일도 연보를 하지 않는 악덕 상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신론자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해서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이론적 무신론자요, 다른 하나는 말로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은 이론적 무신론자와 다름없는 실제적 무신론자들이다. 이러한 무활동적 크리스천(non-activity christian), 즉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①인간이 만든 신조를 신성시하고, ②종파주의를 고집하며, ③책벌·출교 등 처벌에 열심이며, ④형식에 치우쳐 실속이 없는 삶을 통해 오히려 하

113) 상계서, p.50.

나눔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¹¹⁴⁾

그의 목적은 목사를 내쫓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길은 내쫓는 방법에 있을 것이다. 목사님이 전도부인과 불의의 관계를 가져, 그것이 신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공포되는 가운데 쫓겨나야만 만족해 할 것이다.

지금 불탄 자리를 가리키며 이게 웬일이냐고 묻는 말 가운데도 광주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그것으로 쫓아 버리려는 흑심이 숨어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잘못 되기를 바라는 인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라 마귀의 뜻으로 움직이는 인간이다. 마귀의 뜻에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쓰면서 살려고 하는 가증스런 인간.¹¹⁵⁾

김집사는 이번에는 다시 현재 시무중인 목사와 전도 부인을 불륜 관계로 몰아 부쳐 목사와 전도 부인의 비행을 찾고자 엿타는 음흉한 행동을 보인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은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가려 질타하는 바리새인의 성격과 같음을 볼 수 있다. 거지애가 불을 지르고 도망친 후 교회 사찰이 방화를 못 막았음을 들추어내어 광주를 책망하는 장면에서도 김집사의 인물됨이 잘 나타난다.

그러므로 김장로와 김집사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목적으로 이용하여 물질의 탐욕을 채우고, 목사와 전도부인의 관계를 불륜으로 몰아쳐 책벌·출교 등의 처벌에 열심인 위선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행동은 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김으로 무활동적 크리스천으로 분류 될 수 있는 인물들이다.

114) 신익호(1994), 『기독교와 현대 소설』, 한남대학교 출판부, pp.152~153.

성경속에서도 무활동적 크리스천에 대한 언급은 “이사야”의 29장과 “로마서” 2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① “이사야”, 29 : 13.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② “로마서”, 2 : 28~29. 겉모양만 갖추었다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대인이다.”

115) 『종각』, 전계서, pp.171~172.

이들의 죄는 십계명의, 제4계명과 제9계명인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계율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에 나타난 작중인물들은 욕망의 방식에 따라 순종적 회개형, 탈신앙적 타락형, 순진무구한 속죄양형, 권력적 신앙인형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추출된 유형들을 기독교의 죄의식과 윤리인 십계명에 의거해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인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순종적 회개형(최광주)은 다윗형, 탈신앙적 타락형(대주와 선희)는 이세벨형, 순진무구한 속죄양형(목사·전도부인·정장로) 등은 그리스도형, 권력적 신앙인형인(김장로와 김집사)는 바리새인과 발람의 혼합형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V. 죄의식을 통해 바라본 구원의 의미

1. ‘종각’의 상징성



문학에서는 종종 비가시적인 관념의 세계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상징’(symbol)을 사용한다. 「종각」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의 종이 주제와 깊은 상징적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고 보아진다. 작품 내에서 종이 과연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한 시간쯤 있어야 하는 새벽 네시 반. 광주는 높다란 종각 꼭대기에 매달린 아름드리외의 쇠종을 한 번 우러러보고는 전선을 꼬아 만든 밧줄을 잡아당겼다. 「땡그렁」 어두운 방에서 한 개비의 성냥불을 켜면 온 방안이 빛으로 가득 차듯, 금속성의 종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파헤치고 한 구석도 남김없이 번져 나간다. 어둠으로 해서 종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으나 광주는 밧줄을 놓았을 때 기울어졌다가 제 자리로 내려가는 종을 다시 우러러보고 밧줄을 잡아당겼다. 「땡그렁」 이렇게 종을 치기 직전 종을 우러러보는 것은 광주에게 있어서 종이 하느님과 같은 거

룩한 존재로 생각되었고, 거기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하느님의 음성처럼 거룩한 목소리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한 구석도 비우지 않고 온 누리를 꽉 채우며 울려 나가는 종소리에 죄진 사람은 귀가 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¹¹⁶⁾

광주는 교회 사찰로서 아침마다 새벽 네 시 반이면 종각에 매달린 종을 친다. 이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광주는 쇠종을 하느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생각하고 종소리를 하느님의 목소리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광주에게 새벽 종소리는 거룩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죄의식을 갖고 하느님 앞에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게 하는 준엄한 상징적 음성으로 인식된다. 또한 광주가 날마다 열다섯 번씩 타종하는 행위는 닭 울음에 잘못을 뉘우치며 비통하게 울던 베드로와 겸손하게 가슴을 치던 세리처럼 속죄의 정신으로 자신의 과거 죄를 회개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인용 속에서 ‘종’ 혹은 종소리는 세 가지 상징성을 함유한다. 첫째로 종은 하느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둘째로 종소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목소리로, 셋째로 종소리는 죄진 사람의 귀를 트이게 하는 각성의 소리로 상징된다.

따라서 종소리는 죄인에게는 속죄를 자각하게 하는 각성의 동기으로써,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고 약속하는 하느님의 음성으로서의 상징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종이 하느님의 몸이나 음성 또는 각성의 가르침, 또는 구원의 음성을 상징한다면, ‘종각’은 그런 하느님의 몸과 음성, 각성의 가르침 등이 온 세계 구석구석에 울릴 수 있도록 받쳐주고 도와주는 구실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교회와 성직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와 성직자들이 타락하거나 죄에 빠질 경우, 하느님의 목소리와 가르침의 말씀은 전파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당대 교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 조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16) 상계서, p.7.

결국, 종소리는 하느님의 뜻을 인간 세계에 하달할 수 있는 상징적인 구원의 목소리와 인간·세계의 뜻을 하느님께 상달할 수 있는 신구(神具)¹¹⁷⁾의 양면적 의미를 내재한다.

2. 주제의 세계

소설에서 주제는 글의 중심적인 내용이나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참된 의도, 혹은 중심사상을 말한다.¹¹⁸⁾ 이 연구에서는 소설의 주제를 작가가 소재를 통해서 보여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상이나 의미로 보고, 다원주의적 주제 해석법에 따라 각 층위에서 나타난 다양한 주제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만 프리드만(N. Friedman)이 제시한 다원적 주제 해석법은 다양한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주제를 투시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첫째 작품자체(work)의 층위, 둘째 작가의 비전(vision)의 층위, 셋째 작품의 역사적 배경(history)의 층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해석하는 방식으로 다원적 관점에서 주제의 의미를 해석해 낸다.

그러나 여기에 신화나 종교적(the myth and the religion) 층위를 넷째로 내포시켜 해석하면 한층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¹¹⁹⁾

먼저 작품자체의 층위를 언어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종각」은 제재 면에서 성 모랄과 종교적 죄의식을 다룬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 최광주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던 재산을 탕진하고, 열 다섯 명의 여자를 범했으며, 또한 처제인 심삼애마저 정욕의 화신으로 희생시킨 인물이다.

1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7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689~695.

118) 한국현대소설학회(1994), 전게서, p.234.

119) 안성수(1999), “현대소설의 교수방법과 표상형식—<그림 지도법>을 중심으로—”, 제주대 백록논총 제1집, pp.39~40. : 여기서 필자는 제4층위 (신화와 종교층위)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그의 아내 심신애는 그 충격으로 첫 딸인 경선을 남겨 두고 자살한다. 아내의 자살로 충격 받은 광주는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C 교회의 사찰로 취직하는 한편, 최소한의 살림을 위해 군고구마 장사를 하게 된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찰과 군고구마 장사를 겸하면서 광주는 속죄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광주는 처제 삼애의 병과 대주의 방탕과 전처 소생인 경선에게 탄로난 과거로 인해 죄의식이 더욱더 심화되어 고독감에 빠지게 된다.

케리 콜린스에 의하면 죄의식은 역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기도 한다.¹²⁰⁾ 그 결과 광주는 죄의 원인인 삼애를 죽이려고 식도를 샀지만,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전도부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의 계획은 무산된다.

경선을 내쫓은 삼애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경선을 친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에 광주는 고아원에서 경선을 데려오고 거지에 명소를 입양한다. 그러나 동생 대주의 공금 횡령사건으로 인해 김장로는 광주에게 배상과 함께 사찰직을 그만두라고 추궁하자, 이에 광주는 교회를 떠나게 된다.

다음날 새벽- 광주는 새벽종을 치는 시간에 일어났다. 마지막이나마 있는 날까지는 종을 쳐야한다는 생각이었다. 옷을 입고 나서면서 방안에 그득 누워 잠자는 식구들을 둘러보았다. 경선도 명소도 달게들 잠자고 있었다. 「안심들 하라.」 그들에게 축원을 해주고 교회당으로 올라갔다.

「땡그렁 땡그렁!」 종을 치면서 광주는, 「너는 잘 참았다.」하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용서는 사랑보다도 더 힘드는 일이니라.」하는 목소리도 들었다. 광주는 생각했다. 하느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아내를 용서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 땡그렁 땡그렁 광주는 종소리에 맞추어 - 감사아 감사아
하며 감사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부풀어 자꾸만 종을 울리는 것이었다.¹²¹⁾

120) 케리 콜린스(1984), 전계서, p.169.

121) 「종각」, 전계서, p.348.

이 부분은 광주가 교회를 떠나는 날 새벽에 종각에 올라가 새벽종을 치는 장면이다. 여기서 종소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로서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상징한다. 용서는 사랑의 가장 내면적인 행위이며 하나님이 내린 구원의 명령이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한 광주는 김장로·김집사와 대주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됨을 알고 감사한다.

이렇게 볼 때 작품자체 층위에서의 주제는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속죄와 진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길을 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층위는 작가의 비전(vision)의 층위로서 작가의 종교관, 인생관, 세계관, 문학관, 인간관 등과 연관시켜 주제를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박영준은 1911년 3월 2일(음력) 평안남도 강서군 함중면 발산리 688번지에서 감리교 목사인 박석훈과 부인 하석애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 때는 이미 우리 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후였으므로 그는 망국민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집을 떠나 평양에서 목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박영준에게 기독교적 영향을 준 것은 그의 유년시절의 환경과 아버지의 영향, 그리고 기독교적 생활을 들 수 있다.

박영준의 어린 시절은 그의 자전적 소설인 <전사시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옛날 시골 아이들의 생활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그도 어린 시절엔 새 잡는 틀로 새도 잡고 진달래를 따먹고 풀뿌리를 캐먹으며 비교적 건강하게 자랐다. 또한 목사 생활을 하는 아버지 직업으로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나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된다.

1919년 박영준이 10살이 되던 해, 부친 박석훈 목사는 3·1운동에 연루된 혐의로 일제에 피체되어, 평양 감옥에서 옥사한다. 아버지는 민족적 입장에서는 독립투사요, 종교적 입장에서는 순교자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영준은 아버지의 영향을 통해 기독교 의식에 눈뜬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는 이 때부터 그의 어머니와 어려운 생활을 감수해야 했다. 1924년 그는 합중 공립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미선계인 평양 숭실 중학에 입학했다가 1926년에 졸업교인 광성 고등 보통학교에 편입했는데, 이 때부터 문학에 취미를 갖기 시작했다.

1929년 졸업과 함께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진학했다. 그가 것처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옥사한 후, 선교회에서 약간의 자녀 교육비가 나온 덕이었고, 또, 그가 고학을 했던 때문이었다. 한 해를 건강상 이유로 휴학하고 1934년 연희전문을 졸업했다. 교편을 잡은 학교도 기독교 계통학교였으므로 그가 받은 기독교적 영향은 평생에 걸쳐 있었다.

1976년 7월 14일에 지병인 당뇨병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가는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그가 일생 동안 보여준 성실한 태도나 그가 추구하는 윤리도, 역시 그가 자라온 기독교적인 가정 환경의 영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영준은 1934년부터 1974년까지 약 40여 년간 쉬지 않고 문학에 전념한 작가로 한국 문단에 손꼽힐 정도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독교 정신인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는 「종각」 이외의 작품에서도 기독교의 세계를 다룬 바 있다.

<적죄>에서 승기는 삼십 년 전, 중학교 일학년 때, 반장 현수가 담임선생의 송별금 오십 전을 건을 때 내지도 않은 돈을 냈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 있어 괴롭힌다. 승기는 길에서 우연히 현수를 만나 교회당으로 들어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돈을 전부 현수에게 주면서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한다.

<원심력>은 세 아이를 두고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도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재혼한 여자가 그 죄를 남편에게 편지로 고백하면서,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이야기를 쓴 글이다.

<흑색광선>의 동호는 괴로움에 견디다 못해 이십 년 전, 명영의 첫 남편을 죽인 사실을 고백하고, 남편을 고발한 후, 약방으로 가서 코데인을 사서 먹고, 아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눕는다.

<살인자>는 아내와 자식을 자신이 죽이지도 않았는데 죄책감에 시달리는 심리를 그려놓은 소설이다.

또한 <교회당이 있는 마을>에서 일수는 죄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배리의 꽃>은 자기와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간 백희를 못 잊어 하면서, 복수를 생각하는 용의 심리상태를 보여준다.

<불안지대>에서 건강한 육체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이 훨씬 나은 삶을 보여준다.

<사랑의 거리>는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작품들에는 죄를 짓고 난 후,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 작가는 이 작품들을 통해 그들이 새 삶으로 나아가는 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의식은 그의 독실한 신앙과 기독교적 종교관과 윤리관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영준의 작품 속에서는 현대인들이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일관되게 보여 준다. 평생을 오직 성실한 자세로 일관한 그의 삶의 태도는 특히 기독교 세계를 형상화한 작품 속에 잘 형상화되어 있다.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몸소 보여준 종교와 지성적 삶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일제에 항거하다가 옥사한 그의 아버지는 기독교 정신을 실천한 본보기가 된다. 이러한 박영준의 종교관과 실천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은 장편 「종각」 속에 모범적으로 소설화되어 있다.

다음은 평론가 백철이 함께 문단생활을 해 온 박영준의 죽음을 애석해 하면서 박영준의 인간성을 말한 내용이다.

박영준의 人間性은 眞實性, 素朴性, 소(牛)같이 짐묵한 묵직한 성격 등이 나타난 글이다. 朴兄의 人格이란 한마디로 해서 眞實一路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먼저 말한 兄의 그 寡黙한 人品도 그 眞實性의 겸허한 表情이던 줄 압니다. 오늘과 같은 多辯의 시대에 있어서, 그야말로 沈黙은 黃金이라는 人生的인 價値란 것은 분명히 意識한 줄 압니다.

그 人格은 朴兄의 文壇 社會的인 處世態度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朴兄은 우리 社會의 病的인 現實風土인 出世意識, 特權意識을 生理的으로 싫어하는 性品이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에는 朴兄은 그 40여년의 文學生涯에 있어서 한 번도 무슨 단체의 長이란 것을 한일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唯一하게 長을 한번 맡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연세대 문리대학의 文科大學長이 있을 뿐입니다.¹²²⁾

그의 인간적 고통은 불우한 시대 여건과 불행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고향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형성된 내성적인 성품이 크게 작용하여 그의 작품 전반에 깔려 있다. 이러한 그의 작가생활은 <木花씨 뿌릴 때>의 서문에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내 씨름의 삼바는 오직 소설뿐이다”라고 했듯이 40여 년간 소설가로 강렬한 집념을 불태웠다. 그러나 박영준은 작가로서 노력하고 정진하는 태도로 건설 一路의 작품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박영준은 작가적 사명감이 투철함을 알 수 있다. 문학인도 사회참여를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문학을 통해 사람들을 계도하는 교훈적인 작품을 썼다.

작가는 작중인물의 입을 빌거나 또는 직접 자신이 이야기하거나 간에 그 배후에는 반드시 작자 자신의 일정한 신념과 정열이 있다. 이러한 작자의 신념과 정열은 그 작자 자신의 문학사상, 또는 작품경향으로, 그의 작품을 이끌어 가는 중심사상이 되는 것이다.

朴榮濬氏가 애써서 추구해 나가는 것은 현대인들의 윤리적인 문제들이다.¹²³⁾

122) 백철(1976), “朴榮濬兄의 生涯와 그 文學”, 『예술원보』, 제20集, pp.65~66.

123) 김두업(1983), “만우 박영준론”,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p.29에서 재인용.

“박영준은 비인간화의 비인간적 윤리를 폭로 고발하나, 그러나 그 작업에서만 끝나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인간 모탈의 제시를 모색하고 있음을 본다.”¹²⁴⁾

이처럼 박영준의 작품에는 전통적 윤리의식과 기독교적 윤리를 인간윤리의 한 실천방법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박영준은 실천적 인생관과 종교관을 겸비한 사실주의 작가라 할 수 있다.

현실에서 살아야 한다. 현실을 깨끗이 살아야만 과거를 속죄하는 것이 된다.¹²⁵⁾

죄의식은 죄를 범한 후 양심이 괴로워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회개 후 인간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와 윤리를 실천하게 만든다. 이 작품에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 비전 층위의 주제는 기독교를 통한 윤리성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층위는 역사적 배경의 층위로 작가가 작품을 탄생시키게 한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주제를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장편 「종각」은 196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회 걸쳐 「현대문학지」에 연재된 소설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배경인 196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문학과 한국 교회의 현실 상황을 연관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에는 4·19로 인한 자유당 1당 독재의 붕괴, 5·16으로 인한 군사 정부의 등장 등 정치·사회적 혼란이 계속되어 극심한 경제난이 지속되었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 개발이 가속화된다. 따라서 근대화운동이 지속되면서 전통적인 윤리관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물질문명과 돈을 중시하거나 쾌락적 삶을 신봉하는 사조가 급속도로 퍼지게 된다.

4·19 이후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분단 현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산업화가 진전되고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비인간화 현상에 대한

124) 김희보(1979), 전계서, p.73.

125) 「종각」, 전계서, p.189.

비판,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 의식을 형상화한 현실 참여적 성격의 문학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종교적 차원에서 인간의 삶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를 묘사한 박영준의 「종각」도 이 무렵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60년 4·19 학생 혁명이 있는 이후 한국 교회의 많은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은 정치 및 사회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민중 신학이 불을 타고 전파된다. 1960년대 초반에는 복음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토착화 신학과, 1960년대 후반부터는 기독교의 비종교화와 교회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세속화 신학을 주창하기도 하였다.¹²⁶⁾

- ① 이승만 독재 정권을 뒤엎은 4·19와 같은 움직임이 보이는데도 시민들은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 그 경과를 바라볼 뿐이었다. 속으로 폐재를 부르는 시민들도 학생들의 데모를 거리에서 구경할 뿐 그 속으로 뛰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¹²⁷⁾
- ② 그렇소, 사회의 풍조가 하느님까지 불신하게 만들고 있으. 그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정조관을 흐리게 했오. 인구 팽창으로 인한 가족 계획 같은 것이 생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오. 그렇지만 내가 내 딸의 죄를 책임 밖의 일이라 말할 수는 없오. 부모는 자식의 교육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니까.¹²⁸⁾

이렇게 볼 때, 1962년 이후 한국 사회의 산업화 과정은 이농현상과 함께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만들어 사회구조에 큰 변동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안겨 주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농촌 교회들은 농촌 인구의 감소 등 자립하기 어려운 교회로 퇴보하게 된다. 경제적인 성장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물질적인 부에 대한 욕구 불만은 더 강력해졌으며, 빈부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인 빈곤감은 더욱 증대되었다. 전쟁의 참화를 경험

126) 김영재(1992), 「한국교회사」, 개혁주의 신행협회, p.272.

127) 「종각」, 전계서, p.101.

128) 상계서, p.289.

한 국민들은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전쟁이 혹시라도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게다가 도시에 모여든 사람들은 도시 생활에서 오는 불안감, 긴장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해방과 6·25 전쟁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정치인들은 부패와 타락, 전쟁으로 민중의 궁핍과 제도 붕괴는 혼란과 타락을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잃어버린 현대 도시인들의 타락상과 교회의 타락화, 권력화 현상을 폭로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므로 역사적 배경 층위에서의 주제는 교회내의 세속적인 권력화 현상과 사 이비 제직들에 대한 고발과 폭로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화나 종교적 층위에서의 주제 해석은 소설의 주제를 신화의 원초의식이나 종교적 상징성 및 근원의식과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을 뜻한다.

이 작품에서 근원의식은 아담·하와의 신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다. 그들의 육체는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들의 영혼은 죽어 그의 후손인 인류에게 흐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금 세계는 죄와 죽음에 이르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고,¹²⁹⁾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죄의식을 강하게 느껴, 자기의 부족과 연약함을 절실히 의식하게 되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¹³⁰⁾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구속의 성업을 완수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어 모든 것을 제어하는 인간 본래의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되찾게 하였다. 즉,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자유 없이 살면서도 욕심을 부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전 인류에 죽음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전 인류에게 사망 대신 생명이 넘치게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광주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 본성인 원죄의식을 내

129) “로마서”, 5장 1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0) 염명수(1989), 전계서, p.20.

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담·이브 때 이브가 원죄의 씨를 만들었다고 해서만도 아니었다.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죄를 짓는다는 자기의 체험에서 생겨난 잠재의식 때문이다.¹³¹⁾

광주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하느님이 아담의 갈비를 뽑아 하와를 만들고, 또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광주도 하느님이 만든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며 원죄와 비교하고 있다. 따라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의식을 가지게 됨을 볼 수 있다.

예수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린 일이 별반 없었다. 언제나 세상 죄인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그러기에 그는 하느님의 아들로써 부끄럼이 없는 삶을 보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자기 개인 때문이 아니었다. 세상 죄인을 대신해 피를 흘리신 것이다. 남을 위해 좀더 많은 기도를 드리자.¹³²⁾

이처럼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통해 죄의식에서 해방되려는 욕구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작품 속 광주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로마서 6장 22절)는 성경 문구를 실천하고 죄책감에서 해방됨을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기독교적 원죄를 상징화시켜 죄의식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 근원적인 죄성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어도 현실에서 범하는 죄와 한평생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 안의 적임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화 종교적 층위에서는 원초적이며 근원적인 죄를 아담과 이브 이후 생성된 원죄의식에 대한 자각적 이해와 회개를 통한 구원의 욕망이 형상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 소설은 비신앙인인 대주와 선희까지도 원죄의 후예로서 회개와 구원의 대상임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원초적이고

131) 「종각」, 전계서, p.11.

132) 상계서, p.20.

근원적 의미가 신화 종교적 의미와 연결되면서 입체적이고 강한 상징적인 울림으로 주제를 환기시켜 준다.

3. 죄의식과 종교적 구원

죄의식을 통한 종교적 구원의 의미는 암시적이고 상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텍스트는 기독교 입교 이전의 타락한 삶과 행동과 기독교 입교 후의 기독교적 윤리관 및 기독교 교리에 위배된 삶과 행동은 모두 죄의식을 생성함을 보여준다.

기독교적 죄의식 판단기준은 광의로는 기독교가 지닌 윤리성¹³³⁾의 근본인 성경 66권¹³⁴⁾에 나타나 있다. 즉 모든 성경은 신앙생활의 본분을 말하며, 본분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와 사람을 섬기는 도리로 구분된다. 또한 협의로는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에 대하여 많은 비기독교인 상담가들이 기독교가 불건전한 죄의식을 일으킨다고 비판하지만, 성경은 죄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기독교 사상에서 죄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조직 신학자 벌코프는 “죄는 인간의 삶이 지니는 가장 슬프고 보편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하였으며,¹³⁵⁾ 구약 「레위기」에서도 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guilt)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¹³⁶⁾

133) 김수만(1998), 전계서, p.15. 기독교 윤리를 정의하면 “윤리란 인간 행동의 관습을 이성적으로 검토 비판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행동을 실천케 하는 학문이다.”

134) “이사야”, 34 : 16. 모든 성경은 쓰여진 시대, 장소, 직업, 환경, 지식 수준이 다르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은 동일하며 공통적인 주제로 되어있다. 이렇게 쓰도록 조종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135) 벌코프(Berkhof)(1991), 「조직신학(상)」, 권수경 외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p.443.

136)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3~14.

즉, 기독교의 윤리대로 살지 못하거나 율법을 어길 때에는 즉시 기독교적 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비록 범죄를 행한 당사자가 후에까지 그 범죄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 하여도 신학적인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죄에 대한 적절한 인식’ 즉, 적당한 죄의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게 되고, 결국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된다.¹³⁷⁾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식하고 자기가 행한 잘못을 고침으로써 의롭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문학은 독자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어 죄와 파멸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고자 하는 원대한 소망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의 문학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의 세계관¹³⁸⁾과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 죄의식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게 된다.

작가의 신념이 획일적인 윤리주의나 단순하고 안락한 개념화로 드러나면 작품의 생명력은 소멸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기독교문학 작가는 일반 작가보다 더 문학적으로 성숙된 면모를 보여주면서 구원이라는 기독교적 신념을 성공적으로 형상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의미구조 속에 형상화되어 있는 기독교적 구원의 의미는 늘 깨어있으면서 자기의 죄의식에 대하여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속죄행위를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속죄행위는 종교적 심판의 날이 도래할 때까지 구원을 향한 종교적 갈망의 형태로 형상화된다.

이 텍스트 속에서 종교적 속죄행위는 1, 2차 변증법적 속죄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1차는 자기의 범죄행위를 죄의식을 통해 자각하고 기독교에 입문하여 종교적 속죄행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주인공은 사찰로서 직무를 수행(외적)하면서, 성실한 신앙생활(내적)을 하다가도 거지애를 학

137) 박일선(1998), “다윗과 사울의 죄의식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 p.8.

138) 기독교 세계관이란 작가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과 역사와 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작품에 구현해 놓은 것을 말한다. 즉 기독교적 사유의 문학으로서 말하자면 기독교 문학이란 특수한 분야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하고, 목사·전도부인의 관계를 잠시나마 오해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하여 죄를 짓게 된다. 이처럼 인간은 원죄 외에도 삶의 매 순간마다 새로운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변증법적인 회개와 반성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도 광주는 가족(불구인 아내)과 이웃(거지에 입양)에 대한 헌신적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2차의 변증법적 속죄행위를 지속한다.

그러므로 죄의식을 통한 구원의 의미는 구원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회개를 통한 죄의식의 자각과, 봉사과 사랑의 실천 등과 같은 종교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자기의 신앙행위와 종교적 행위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끊임없이 실천하면서 바람직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신실한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소설 속 주인공의 속죄 행위는 변증법적 의식의 발전과정을 통해 점진적, 누적적으로 종교적 구원을 향한 노력과 행동 속에서 전개된다.



VI. 결 론

이 연구는 박영준의 장편소설 「종각」을 텍스트로 하여, 작품의 구조와 욕망 분석 등을 통하여 인물의 유형과 인간상 등을 추출한 뒤, 구원의 의미를 죄의식과 관련시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본적인 연구방법은 작품에 대한 치밀하고도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구조주의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작품의 입체적 해석과 설명을 위하여 문학사회학, 역사주의, 심리학, 신학, 기호학적 방법 등을 원용하였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텍스트를 요약하여 작품의 구조와 기법을 찾아내고, 플롯과 스토리의 대비를 통해 작품의 미적 변형원리와 기능들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종교적 차원의 죄의식 모티프를 주제로 형상화시키기 위해 시간착오, 패턴, 콜라주, 제한적전지시점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작중인물의 욕망과 갈등을 기호학적 방법인 이항대립구조(의미작용의 기본구조)의 기본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작중인물의 욕망방식과 갈등구조가 곧 이야기의 기본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텍스트 속에서 추출된 욕망유형은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적 인간상들의 성격유형과 인간상을 찾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 작품의 작중인물들은 죄의식과 신앙관(종교관)의 관점에서 네 가지로 유형화되고 있다. 즉, 회개와 기도를 통해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순종적 회개형(최광주), 비신앙인으로서 타락한 성 관계를 통해서 본능적인 삶을 추구하는 탈신앙적 타락형(대주·선희), 대립자의 음모와 모순을 깨닫지만 속죄양적 신앙생활로 순진무구한 생활을 지향하는 순진무구한 속죄양형(목사·전도부인·정장로), 탐욕과 위선을 통해 교회 권력화를 기도하는 권력적 신앙

인형(김장로·김집사) 등이 있다.

제Ⅳ장에서는 앞장에서 분석 추출한 작중인물의 유형들을 기독교적 인간형의 모델들이 내재해 있는 성경 속의 인물에 접근시켜 보았다. 이런 유형화 작업은 기독교적 인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기독교적 인간상을 추출하기 위해 죄의식과 심계명을 분석과 평가의 준거로 삼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성격유형을 지닌 인간상을 추출할 수 있었다. 즉, 간음죄를 짓고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다윗형(최광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비윤리적이고 반기독교적 언행에도 회개와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이세벨형(대주·선희), 속죄양의 죄의식을 갖고 살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이면서도 또한 너무나 순수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사회들로부터 배척받은 그리스도형(목사·전도부인·정장로), 종교적 가면을 쓰고 위선과 물질적 탐욕으로 신앙보다는 세속적 이익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발람의 혼합형(김장로·김집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Ⅴ장에서는 '종각'의 상징성과 주제, 구원의 의미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즉 교회의 '종각'은 하느님의 몸과 음식, 각성의 가르침 등을 도와주는 교회와 성직자들을 상징한다.

또한 다원적인 주제해석법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의 주제 해석을 시도하였다. 작품자체의 층위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속죄와 진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길을 가는 이야기로 본다. 작가 비전의 층위에서는 기독교를 통한 윤리성 회복을, 역사적 배경의 층위에서는 교회내의 세속적인 권력화 현상과 사이버 제직들을 고발하고 폭로한다. 마지막으로 신화 종교적 층위에서는 원죄의식에 대한 자각적 이해와 회개를 통한 구원의 욕망이 형상화되어 있다.

작품 속에서 죄의식의 자각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고, 그러한 구원의 의미란 끊임없는 회개를 통하여 죄의식을 자각하고, 봉사과 사랑의 실천 등과 같은 종교행위를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작가는 이러한 구원을 향한 실천적 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누적

적인 종교적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박영준의 장편소설 「종각」 한 작품만을 텍스트로 선정한 데서 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소설 속에 나타난 작중인물의 여러 유형을 기독교 사상과 죄의식을 통해 분석해내고, 미약하나마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인간상의 원형을 찾아 비교하여 보았다는 데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박영준의 모든 기독교적 작품들과 연계한 기독교적 인간상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영준(1972), 「종각」, 삼성출판사.
한글 개역판(1956), 「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

2. 단행본

- 게리 콜린스(1994), 「균형잡힌 그리스도인」, 최건호 역, 오상출판사.
_____ (1984), 「크리스찬 카운슬링」, 피현희·이혜련 역, 두란노.
구인환(1982), 「소설 쓰는 법」, 동원출판사.
_____ (1997), 「소설론」, 삼지원.
권영복(1991), 「성경 주제별 연구」, 가나안말씀사.
권택영(1991), 「영화와 소설 속의 욕망이론」, 민음사.
기독교백과사전 편찬위원회(1984), 「기독교 대 백과사전」, 기독교문사.
김경완(2000), 「기독교 문학과 삶의 변화」, 이레서원.
김기정(1986), 「신학사전」, 엠마오.
김병욱(1983), 「현대소설의 이론」, 최상규 역, 대방출판사.
김세운(2001), 「구원이란 무엇인가」, 두란노.
김수만(1998), 「기독교 윤리」, 한글.
김영재(1992), 「한국 교회사」, 개혁주의 신행협회.
김우규(1992), 「기독교와 문학」, 종로서적.
김우중(1968), 「한국 현대 소설사」, 선명문화사.
김 현(1988), 「분석과 해석」, 문학과지성사.
김화영(1986), 「소설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_____ (1998), 「문학 상상력의 연구」, 문학동네.
김희보(1979), 「한국문학과 기독교」, 현대사상사.
김성호(1994), 「인명지명사전」, 엠마오.
노드롭 프라이(1982), 「비평의 해부」, 임철규 역, 한길사.

- 나병철(1996),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 데릭 윌리엄스(1992), 「IVP 성경사전」, 이정석 외 역, 한국기독교학생회.
- 레즐리 스니븐슨(1981),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일곱 가지 이론」,
임철규 역, 종로서적.
- 마크 킨저(1988),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정옥배 역, 두란노.
- 명형대(1998), 「소설 자세히 읽기」, 경남대학교.
- 밀라드J. 에릭슨(1993), 「인죄론」, 나용화·박성민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 박영근(1992), 「한국문학대사전」, 고려출판사.
- 박원기(1995), 「기독교 사회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 삼포릉자(1986), 「성서에서 본 인간의 죄 :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서」, 최현 역,
삼민사.
- 신의호(1994), 「기독교와 현대소설」, 한남대학교.
- 안성수(2001), 「소설의 시학과 방법」, 미발표 원고.
- 양승훈(1999), 「기독교적 세계관」, CUP.
- 양창삼(1998), 「창세기 강해」, 그리심.
- 얼 윌슨(1995), 「죄의식」, 김창대 역, 두란노.
- 엄해영 외(1995), 「소설교육론」, 느티나무.
- 염명수(1989), 「성서인물 연구」, 한국문서선교회.
- 오스워드 챔버스(1994), 「죄의 철학」, 정광욱 역, 두란노.
- 이건창(1999), 「좋은 세계관, 낮은 울타리」.
- 이관식(1982), 「새 심방 설교대사전」, 백합출판사.
- 이상철(1999), 「한국 기독교 소설사」, 양문각.
- 이상우(1996), 「현대소설의 원형을 찾아서」, 애플기획.
- 이석우(1989), 「기독교 사관과 역사의식」, 성광문화사.
- 이성호(1980), 「새 성서 대사전」, 혜문사.
- 이윤근(1988), 「구원론」, 성광문화사.
- 임영천(1995), 「한국 현대문학과 기독교」, 태학사.

- 진규태(1977), <박영준 작품해설>, 『한국대표 문학 전집』 7, 삼중당.
- 제임스 사이어(1995),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현수 역,
한국기독교학생회.
- 정창범(1986), <신(神)을 향한 기도>, 『농민/종각 외』, 삼성출판사.
- 정한숙(1973), 『소설기술론』, 고려대학교.
- _____ (1994), 『현대소설작법』, 장락.
- 조남현(1983), 『소설원론』, 고려원.
- 조정래·나병철(1991), 『소설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 조신권(1986), 『성서와 문학』, 신원 문화사.
- 최병우(1997), 『한국 현대 소설의 미적 구조』, 민지사.
- 최 하(1992), 『21세기의 지식·사상·윤리』, 자연윤리사.
- 츠베탕 토도로브(1977), 『구조시학』, 광광수 역, 문학과지성사.
- 쿠르트 호호프(1986), 『기독교 문학이란 무엇인가?』, 한승홍 역, 두란노.
- 폴투르니에(2001), 『죄책감과 은혜』, 추교석 역, 한국기독교학생회.
- 한국기독교문서간행회(2000), 『현대인의 삶과 신앙』, 한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4), 『한국민족문화 대 백과사전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현대소설학회(1994), 『현대소설론』, 평민사.
- 한영제(1982), 『기독교 대 백과사전』, 기독교문사.
- 한용환(1992), 『소설학 사전』, 고려원.
- _____ (1989), 『소설의 이론』, 문학아카데미.
- 현길언(1997), 『소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남.

3. 논문

<학위논문>

- 강요열(1991), “한국 현대 기독교소설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권영기(1977), “박영준의 농민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경화(1993), “황순원의 장편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김두업(1983), “만우 박영준 론”,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봉균(1995), “한국소설의 기독교의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선실(1995), “헬무트 킬리케의 자연법과 양심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김영순(1984), “한국근대초기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사상”,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문인숙(2000),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박명진(1991), “문학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 고찰”,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박일선(1998), “다윗과 사울의 죄의식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박종우(1987), “기독교 평신도의 신앙생활에서의 갈등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방윤순(1985),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의 수용문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안성수(1989),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플롯연구 시론”,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오승균(1988), “개화기소설에 미친 기독교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유동희(1996), “하인리히 뵐 소설에서의 기독교적 인간상”,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윤미경(1990), “개화기 기독교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윤혜정(1993), “한국 기독교소설의 죄와 구원의 양상”, 석사학위논문,
성심여자대학교.
- 이상욱(1984), “늘봄 전영택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이은화(1993), “Ulysses에 나타난 인간상의 세 유형”,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이진환(1991), “기독교적 신심척도의 구성”,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이필석(1982), “한국 현대소설에 반영된 죄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임정옥(1997), “황순원 소설에서의 죄의식과 구원문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장상용(2000), “죄와 벌에 나타난 죄의식의 문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장소진(1998), “현대 소설의 플롯 유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정운숙(1996), “박영준 소설에 나타난 사회 의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정은수(1985), “죄의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정병환(1978), “기독교의 인간관”,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하영민(1991), “사랑과 죄의 인물구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황옥성(1985), “박영준의 소설에 나타난 인물고찰”,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일반논문 및 평문>

- 김문주(1998), “죄(의식)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신학과 사상」, 26호,
카톨릭대학교.
- 김상일(1961), “영준 또는 추장의 문학”, 「자유문학」, 6권 5호.
- 백 철(1976), “박영준형의 생애와 그 문학”, 「예술원보」, 제20호.
- 안성수(1992), “플롯의 미적기능과 유형적 의미”, 「백록어문」, 제9집,
제주대학교.
- _____ (1995), “인연찾기의 담론구조와 액자미학”, 「국문학보」, 제13집,
제주대학교.
- _____ (1999), “현대소설의 교수방법과 표상형식”, 「백록논총」, 제1집,
제주대학교.

- 이선영(1976), “빈곤과 고독의 의미”, 『한국문학』.
- 임영천(1990), “죄의식에 사로잡힌 고뇌의 인간상”, 『기독교교육』, 통권264.
- _____(1996), “죄의식에 몸부림치는 고행자적 인간상”, 『신앙세계』, 30권 7호.
- 조신권(1978), “기독교문학의 본질·구조·기능”, 『현대사조』.
- 최재락(1996), “죄의식-인격적 억압과 갱생의 스펙트럼”, 『기독교사상』, 40권 8호, 대한기독교서회.
- 편집부(1976), “박영준(朴榮濬) 연보(年譜)”, 『한국문학』.



<Abstract>

Christian character of 「Jonggak」, Youngjoon Park.

Joo, Young-Ja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Ahn, Seong-Soo

This study is based on the text of 「Jonggak」 that is novel of Youngjoon Park. It tried to examine closely the meaning of the salvation through guilty. So it studied the structure of this novel and took out types of characters and humanity through analysing desire and conflict structure.

For this purpose I used mainly the way of structurism to study and analyse the novel. Then I clamed literature-sociology, historism, psychology, theology and a symbolical method.

In chapter 2, I searched meaning and discovery of style and the principle of transformation, I summarised and analysed the text according to the way of structurism.

The result of this novel strengthens reality of the work and guilty of the religious dimension through technique of time error, technique of patterns, collage, a point in time and predication. And it reaches for situation of reflection and repentance.

In chapter 3, I tried to search a desire and conflict according to the basic struture of two opposition (the basic structure of meaning function).

This attempt apply the form of analysing materiality to separate the

characters and personality of people. There are four types of characters that a obediently repentance type, depraved type, an innocent sheep of atonement type, and authoritcal believer type.

In chapter 4, I appoched characters in the Bible that I used previous chapter about four types of character. The standard of jugement is christian guilty. This materiality work gave me deep understanding of christian characters. It is configurated four types of characters which are the types of David, Jezebel, Christ and mixture of Balaam and Pharisees.

In chapter 5, I tried to interpretate the symbolism of this novel 'Jonggak' and the realm of subject in various dimensions. The main charactor realised guilty through repentance in this novel and this novel gave expression of practical religious acts like to practice serving. It shows that the effort toward religious salvation gradually and accumulately.

Finally, in chapter 6, it brought up the result of controversy of all to summarize and readjust i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2.